

碩 士 學 位 論 文

東 學 的 教 育 思 想 考 察

指 導 教 授 韓 錫 祉



濟 州 大 學 校 教 育 大 學 院

社 會 教 育 專 攻

張 元 培

2002년 8 월

東學의 教育思想 考察

指導教授 韓 錫 祉

이 論文을 教育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02년 6 월 일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社會教育專攻



提出者 張 元 培

張元培의 教育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2002년 7월 일

審査委員長 _____인

審査委員 _____인

審査委員 _____인

<국문 초록>

동학의 교육사상 고찰

장 원 배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사회교육전공
지도교수 한 석 지

동학은 19세기 조선사회의 대내외적 위기상황과 정치, 도덕, 사회의 부패로 절망한 민중에게 새시대적 희망을 심어줄 수 있는 민중 자각의 표현 사상으로서 우리 민족 고유사상에서 연원을 찾은 사상체계이며 민족의 주체성과 인간 존재의 본질을 인내친과 사인여천에 바탕을 둔 인권존중과 인간 평등 사상이었다는 면에서 오늘을 사는 한국인에게도 교훈적이며 철학적 시사점 또한 적지 않다.

따라서 동학사상은 민중의 자각화, 인간화를 위한 개화운동인 동시에 그 자체가 하나의 교육사상으로서의 성격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동학에 대하여 종교적·철학적 시각에서 동학사상을 연구한 업적 또한 적은 것은 아니지만 동학사상이 교육에 직결될 수 있는 교육사상적 의미는 충분히 밝혀지지 않았다. 여기에서 동학을 종교나 계몽적 혁명사상 외에 어떻게 교육사상적 측면에서 고찰이 가능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겠으나 교육을 어떤 시각에서 보느냐하는 관점에 따라 이해가 가능할 것이다. 교육은 문화적 사회적 기능의 작용이라는 광의의 관점과 교육적 문제들은 우리의 문화적 전통과 분리되어서는 바르게 인식될 수 없다는 두 가지 입장이 있다. 이러한 입장들은 동학의 교육적 차원에 대한 연구가 개별적 내지는 포괄하여 동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근거가 될 것이다. 이러한 필요성에 입각하여 본 연구는 동학사상 속에 깃들여 있는 교육사상을 고찰하여 재조명함으로써 현대 교육적 의미를 제시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하였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동학의 기본 경전인 동경대전과 용담유사를 중심 문헌으로 하고 이와 관련된 서책이나 논문, 단행본을 2차 자료로 하는 교육사 연구방법을 채택하였다. 즉 동학을 사상의 관점에서 보되 그것의 역사적 상관성을 사상의 흐름이라는 점에 유의하여 살펴보려는 접근방법으로 동학을 종교적 관점에서 보려는 것보다 다르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특정 사실에 중점을 두려는 입장보다 다르다.

따라서 동학이라는 사상의 흐름 속에서 동학의 교육사상을 고찰하기 위한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 I 장은 동학이 교육학적 입장에서 연구되어야 하는 이유를 문제제기 형식으로 밝히고 이의 연구의 범위와 방법을 밝혔다.

제 II 장은 동학 사상의 연원을 찾기 위한 그 시대의 사회적·사상적 배경과 동학의 기본사상을 고찰하였다.

* 본 논문은 2002년 8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위원회에 제출된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임.

제Ⅲ장은 동학 교육사상을 정립하기 위하여 교육사상의 기초가 되는 교육관을 살폈으며, 제Ⅳ장은 동학의 교육관에서 도출되어진 이론적 근거를 통하여 동학사상에 내포 되어있는 교육사상과 현대적 의미를 제시하였다.

제Ⅴ장은 결론 부분으로 전체적인 요약을 통하여 동학의 교육사상을 고찰한 결과와 교육사상적 의의 및 현대교육에 주는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고찰한 결과 동학의 기본사상은 인간의 존엄성, 민족주체성이라고 압축하여 볼 수 있다. 즉 인간을 인간답게 살도록 사회를 변화시켜야 하며 인간의 행복을 위하는 것이 국가의 모든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런 면에서 일반적으로 동학사상은 인간을 궁극적 목적으로 보며, 상실된 자아를 자각하는 인간적 주체성 확립과 보국안민의 민족적 주체성을 겸비한 인간 육성이라는 그 실천을 최고의 가치로 추구했다는 점에서 교육사상적 의의를 지니고 있다.

동학사상의 고찰을 통하여 나타난 동학의 교육사상과 현대 교육적의미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본주의 교육사상이다. 동학은 봉건사회의 차별적 인간관을 부정하고 '사람이 곧 하늘이다' 하여 인간의 존엄성을 하늘과 관련하여 주장하여왔다.

이 같은 '인내천'사상은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의 실현을 위한 신념에서 출발한 사상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확인한 자각선언이었다. '시천주' 함으로써 체득되는 '인내천'은 인본주의적 교육 가치관이자 교육사상이라고 할 수 있으며 현대 사회의 가장 근본적 문제인 인간소외, 인간부재의 해결 방안으로서 현대 교육적의미를 지닌다.

둘째, 도덕주의 교육사상이다. 동학은 '수심정기'를 통해 자아각성을 중시하는 자율적인 도덕적 인격의 형성을 도모하였으며, 도덕적 실천에서 개인적 가치를 최대한 존중하여 자율적 실천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현대 도덕교육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리가 동학의 도덕 교육사상에 관심을 갖는 것은 부패한 사회 현실을 고발하고 그 재건을 갈망하는 계몽주의적 요소와 가르치는 것보다는 자율적 인격 함양에 비중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교육적 가치를 들 수 있다. 이러한 점은 오늘날 도덕교육이 도덕적 안목과 도덕적 판단능력의 신장을 통해서 접근하며 실천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동학이 자율적 실천과 도야를 통하여 인격을 형성시키려고 목적하였던 점은 교육사상적 측면과 현대 교육적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할 것이다.

셋째, 민족주의 교육사상이다. 동학은 조선 말의 민족적 위기 속에서 이에 대응한 민족에 대한 주체적 자각으로 보국안민과 광제창생을 기본 목표로 하는 사상체계를 형성하였다. 이러한 동학의 대응은 조선사회의 운과 세계사적인 변화의 운에 대해 매우 독창적이며 주체적인 아래로부터의 창조적 대응이었으며, 또한 동학의 '동귀일체'사상은 지기의 무한한 자연 순환에너지인 기화를 통하여 결국은 대립갈등을 자연적으로 해소하여 하나가 된다는 뜻으로 과거의 모순과 폐습을 타파하여 새 세상이 된다는 개혁사상과 함께 이 시대에도 그대로 적용되어 지역간, 계층간, 민족간의 대립과 갈등을 해소하고, 특히 민족분단의 모순과 불합리를 극복하는 통일이념으로 재해석되어 질 수 있는 것이며 민족통일의 지표로서의 현대 교육적의미를 찾을 수 있다.

<목 차>

I. 序 論	1
II. 東學思想의 背景과 本質	5
1. 東學思想의 背景	5
2. 東學思想의 本質	12
III. 東學 教育思想의 基礎	22
1. 宇宙觀	22
2. 人間觀	26
IV. 東學의 教育思想	33
1. 人本主義 教育思想	34
2. 道德主義 教育思想	42
3. 民族主義 教育思想	48
4. 東學 教育思想의 現代的 意味	57
V. 要約 및 結論	63
참고문헌	66
영문초록	71

I. 序 論

조선사회의 학문경향을 비판하면서 근대 開化教育思想을 전개했던 實學運動에 이어 민족 개화의 새로운 의지로 주체적 民衆敎化를 시도했던 東學思想에 대해 최근들어 敎育思想의 측면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¹⁾

東學이라면 ①西學에 반대되는 조선말기의 反抗思想, ②淸·日戰爭의 직접적 원인이 되었던 진봉준 등의 農民革命運動과 관계된 사상, ③東學은 후에 天道敎로 발전되었음 등의 피상적인 내용으로 전해져왔다.²⁾ 그러나 東學은 19세기 조선사회의 대내외적 위기상황과 政治, 道德, 社會의 부패로 절망한 민중에게 새시대적 희망을 심어 줄 수 있는 民衆³⁾ 자각의 표현 사상으로 우리 민족 고유 사상에서 연원을 찾은 사상체계이며 민족의 주체성과 인간 존재의 본질을 人乃天과 事人如天에 바탕을 둔 人權尊重과 人間平等思想이었다는 면에서 오늘을 사는 한국인에게도 교훈적이며 철학적 시사점 또한 적지 않다.

東學은 ‘人乃天’의 절대적 진리에 바탕 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성을 신격화하여 근원적 자유, 평등 이념을 示顯하고 있다. 이 같은 인간 평등은 신에 종속된 평등이나 계급타과의 평등이 아니고 인간을 신의 차원으로 높이는 神人一體의 근원적 평등주의를 나타내고 있다.⁴⁾ 人乃天思想은 사람이 신에 예속되는 존재가 아니고 인간성 상실보다는 인간성 회복의 우월성을 갖게 함으로써 人間尊嚴性 자각과 모

1) 李元浩(1978), “東學思想의 측면에서의 韓國敎育思想”, 「韓國敎育의 思想的 淵源」, 한국 교육사연구회. pp.49~64.

孫仁銖(1980), “東學의 人間觀”, 「한국인의 가치관」, 문음사.

_____ (1982), “東學의 人間主體思想”, 東學思想研究發表會.

南宮勇權(1983), “東學敎育思想研究”, 「논문집」, 제11집, 관동대학교.

張大熙(1983), “東學의 民衆敎育思想研究”, 박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崔武錫(1988), “東學의 道德敎育思想에 관한 研究”, 박사학위 논문, 고려대학교.

宋俊碩(1993), “東學의 平等敎育思想에 관한 研究”, 박사학위 논문, 고려대학교.

2) 남궁용권(1983), “東學敎育思想研究”, 「논문집」, 제11집, 관동대학교, p.178.

3) 국가나 사회를 구성하는 다수의 일반국민. 흔히, 피지배 계급으로서의 일반 대중, 서민, 과 같은 개념으로 규정 함.

4) 오익제(1989), 천도교개관, 천도교중앙총본부. pp.44~45.

든 가치의 중심에 인간을 위치시키고 모든 사람이 모든 것을 주체적으로 결정하는 人本的 平等思想이었다.

따라서 東學思想은 민중의 자각화, 인간화를 위한 開化運動인 동시에 그 자체가 하나의 教育思想으로서의 성격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東學에 대하여 종교적·철학적 시각에서 東學思想을 연구한 업적 또한 적은 것은 아니지만 東學思想이 교육에 직결될 수 있는 교육사상적 의미는 충분히 밝혀지지 않았다.

여기에서 東學을 宗教나 啓蒙的 革命思想 외에 어떻게 교육사상적 측면에서 고찰이 가능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겠으나 교육을 어떤 시각에서 보느냐하는 관점에 따라 이해가 가능할 것이다.

“教育은 文化的 社會的 機能의 작용이라는 廣義의 관점에서 이해될 뿐 아니라 교육현상은 바로 社會 文化的 現狀으로 간주하여야 할 것이다.”⁵⁾라고 교육을 광의 개념으로 보아 宗教, 思想, 社會改革이라는 상호 복합작용으로 볼 때 교육운동이 되고 그 사상은 교육적으로 해석이 가능하다는 입장과 현대사회에 나타나는 교육적 문제들은 우리의 文化的 傳統과 분리되어서는 마르게 인식될 수 없으며, 그러한 문제들을 인식하는데 있어서, 그 사상적 관련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것은 그 교육적 사실 속에 사상적인 뿌리가 살아있기 때문이다.⁶⁾며 교육현상을 과거와 미래의 단절이 아닌 일련의 교육적 연결로 보는 입장이 있다.

이러한 입장들은 동학의 교육적 차원에 대한 연구가 個別的 내지는 포괄하여 同時的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근거가 될 것이다. 이러한 필요성에 입각하여 본 연구는 교육은 文化的·社會的 機能이라는 전제 하에 東學思想 속에 깃들여 있는 교육관을 고찰하여 재조명함으로써 ‘교육에 대한 가치관’인 教育思想 정립에 기여하고 現代 教育的 意味를 제시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東學은 民衆 敎化的인 종교적 성격 때문에 체계적인 教育理論이나 教育思想이 언급되어 있지 않아 東學思想 체계 속에서 教育思想을 고찰하는 데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創道 時의 民衆敎化와 民族敎育을 근본

5) 남궁용권(1983), 전계논문, p. 179.

6) 손인수(1996), 「教育史·教育哲學의 이해와 실제」, 문음사, p.1. ;이근모(1998), “東學의 『東經大全·龍潭遺詞』에 나타난 人間敎育觀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교원대학원, p.1에서 재인용

으로 한 教育思想 고찰로 범위를 한정하여 다음의 사항에 유의하고자 한다.

첫째 : 본 연구의 기본자료인 東學의 경전에는 교육에 대하여 특별히 언급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東學思想에 내포되어 있는 내용과 선행연구를 통하여 教育思想을 도출할 것이다.

둘째 : 東學 經典의 해석을 宗教的, 精神的, 神仰 實踐 思想의 측면에서 접근하지 않고 교육학적 측면에서 분석·고찰한다.

셋째 : 東學思想은 崔水雲, 崔海月, 孫義菴의 각 시대마다 思想的 性格의 변화가 있었으나 基本思想을 토대로 하여 전개한다.

東學의 기본사상과 가치관을 통하여 교육적으로 계승 발전시키기 위하여 東學의 教育思想을 고찰하려는 본 연구는 東學의 기본 경전인 東經大全과 龍潭遺詞를 중심 문헌으로 하고 이와 관련된 서책이나 논문, 단행본을 2차 자료로 하는 教育史 研究方法⁷⁾을 채택하였다. 즉, 東學을 思想의 관점에서 보되 그것의 역사적 상관성을 사상의 흐름이라는 점에 유의하여 살펴보려는 접근방법으로 東學을 宗教的 관점에서 보려는 것보다도 다르며, 政治, 經濟, 社會, 文化 등의 특정 사실에 중점을 두려는 입장보다 다르다.

東學의 根本思想이 어떠한 사고의 변화 과정을 겪으면서 전개되어 왔는가 하는 思想의 흐름 속에서 東學 教育思想을 고찰하기 위한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 I 장은 東學이 教育學的 立場에서 연구되어야 하는 이유를 문제제기 형식으로 밝히고 이의 연구의 범위와 방법을 밝힌다.

제 II 장은 東學 思想의 연원을 찾기 위한 그 시대의 社會的·思想的 背景과 東學의 기본사상이라고 볼 수 있는 人乃天思想, 開闢思想, 輔國安民思想을 고찰한다.

제 III 장은 東學 教育思想을 정립하기 위하여 教育사상의 기초가 되는 教育관을 우주관과 인간관으로 분류하여 살펴본다.

제 IV 장은 동학의 教育관에서 도출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를 찾아 東學思想에 내포 되어있는 教育思想을 고찰하여 東學 教育思想의 현대 교육적 의미를 제시한다.

7) 정재철(1988), “教育史 研究에서의 基本 問題”, 「韓國教育史學 제10집」, 한국교육사연구회, p.10.; 教育史 研究단 교육의 여러 현상이나 존재 방식이 역사적 조건에 따라 어떻게 규정되었는가를 추구하고 교육이란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대해서 본질을 탐구하고 教育의 이념을 밝히기 위한 연구인 것이다.

제 V 장은 結論 部分으로 전체적인 요약을 통하여 東學의 敎育思想을 고찰한 결과와 敎育思想的 意義 및 現代敎育에 주는 시사점을 논의한다.



Ⅱ. 東學思想의 背景과 本質

1. 東學思想의 背景

1) 社會的 背景

양반을 지배 계층으로 하는 身分制 사회였던 조선사회는 1830년대 이후 돈으로 벼슬을 사고 족보를 속여 양반 행세를 하는 돈 많은 농민, 상인들이 나타나고 과거의 신분적 지위를 잃어버리고 소작농으로 전락해버린 양반들도 나타났다.

양반들의 세력 균형을 기반으로 이루어진 朝鮮王朝의 兩班 官僚 政治는 일부 소수 양반들에 의해서 독점되어 양반사이의 세력이 깨어지게 되면서 대립과 분열이 격화되어 원래적인 체제와 균형을 유지할 수 없었다.

조선왕조의 양반사회는 17세기 이후 점차 무너지기 시작하여 19세기 중엽에 와서는 純祖, 憲宗, 哲宗의 3대 60여 년 동안 국가의 통치를 외척이 독점하고 운영한 勢道政治⁸⁾로 변질되었다. 이들은 정권을 장악하여 軍國의 機務, 百官의 任命은 물론 왕명 출납까지 간섭하여 권력을 남용하였으며, 정치체제는 정치기강의 문란에 따른 官僚制度의 파탄을 초래하였다.

純祖代에 老論을 배경으로 한 外戚 安東 金氏의 이른바 戚黨政治는 일가 친척 까지도 온갖 부귀와 영화를 누렸으며 그 횡포와 부패는 극에 달하였다. 또한 대를 이은 집권은 과거제의 문란을 가져오고 과거의 시행이 뇌물로써 합격이 결정되었으며 직접 관직을 賣官賣職하는 폐풍을 초래하였다.

科場의 엄격하지 못한 것이 근래와 같은 일은 없었다. 팔방에서 모여드는 선비

8) 변태섭(1996), 「한국사통론」, 삼영사, pp.356~358.

- 정조의 뒤를 이은 순조, 헌종, 철종이 어린 나이에 즉위하자 안동 김씨와 풍양 조씨에 의한 세도 정치가 3대 60여 년간 계속되었다. 이로써 왕권은 약화되고 정치적 파탄은 더욱 촉진되어 외척이 정권을 독단하게 되었다.

가 처음에는 관광을 위하여 한양으로 올라오는 풀이고 나중에는 모두 실망해서 돌아가는 풀이다. 9)

과거제도의 부패와 파탄, 空名帖의 발매와 願納錢에 의한 품직, 수령 제수의 賣官賣職 현상은 지방에 있어서도 돈을 수령에게 바치고 벼슬을 사는 이른바 賣任取錢의 폐풍으로 발전하였다.

매관매작(賣官賣爵) 세도자(勢道者)도 일심(一心)은 궁궁(弓弓)이오
전곡(錢穀)쌓인 부침지(富僉知)도 일심은 궁궁이오
유리걸식(流離乞食) 폐가자(敗家者)도 일심은 궁궁이라 10)

양반 세도자들은 경제적 부까지도 장악하게되어 국가의 기본 수취체제인 三政¹¹⁾의 紊亂이 가속되었다. 19세기 중엽에 이미 극한 점에 달한 三政의 紊亂으로 지방 관리들은 축재에 전념하게 되었고 향리들과 결탁하여 농민을 착취함으로써 농민 생활의 절대적 부담과 함께 농촌 사회 피해를 초래하게 되었다.

오늘 날 삼정이 모두 결함과 폐단이 심하여 백성이 살아가기 어렵게 됐다. 그들 가운데서도 還穀이야 말로 백성에게 ‘뼈를 베는 폐단’으로 되어 있다. 심하면 아예 나누어 주지도 않은 쌀을 갚아내라고 마구 독촉하게 되니 이것은 이미 환곡도 아니다. 12)

또한 설상가상으로 19세기 전반에는 水害와 饑饉¹³⁾들이 겹쳐 백성들의 생활을 더욱 피폐하게 하여 조선 후기의 사회를 동요하게 하였다.

이러는 가운데 농민들의 政治意識과 社會意識도 성장하여 그들의 불만 의식이

9) 순조실록, 「권 20」, 순조 17년 10월 戊午. ; 이강일(1992), “東學의 人本主義 教育思想”,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p.6에서 재인용.

10) 龍潭遺詞, 夢中老少問答歌, 天道敎中央總部.

11) 삼정이란 田政, 軍政, 還穀을 가리키는 것으로 삼정 중에서도 민생에 가장 폐해가 큰 것은 환곡이었으며, 특히 환전, 환곡의 회수(貸與錢의 回收)에 큰 폐단이 있었다.

12) 備邊司騰錄, 哲宗3년, 10月 22日.

13) 1841년 겨울에는 나쁜 질병이 돌았고 1846년 6월에는 지진이 일어났으며, 이해 9월에는 전국적으로 수해가 심하였다. 특히 1830년과 40년대에는 3,4년 간격으로 일어나던 수해가 1850년대에 들어서면서 거의 해마다 일어났고 이듬해 1851년 7월에는 전국에 걸쳐 수재가 심하여 다음해 2월에는 서울과 삼남지방에 많은 유민이 발생하였다. 최동희(1974), “水雲의 基本思想과 그 狀況“, 「韓國思想史叢書IV」, p.160 ; 정대성(1999), “水雲 최제우의 教育思想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대학원, p.12에서 재인용

팽배하게 되어 마침내 전국 각지의 民亂¹⁴⁾으로 발전·확대 되었다.

月出夜無東 日落夕不西 달이 동쪽에 솟으나 밤은 동쪽이 없고,
해가 서쪽에 떨어지나 저녁은 서쪽이 아니라.¹⁵⁾

따라서 정치·사회적인 혼란과 불만에서 벗어나려는 마음은 末世에 대한 탄식
으로 이어졌으며 이를 극복할 새로운 세상을 갈구하게 되었다.

한편 19세기 중엽 조선사회는 내부적 모순뿐만 아니라 외부로부터 도전해온 다
른 사회적 불안이 위기의식을 가져다 주었다. 즉 西勢東漸의 위협이 19세기에 그
절정에 달해 있었다. 19세기에 와서 서구 열강은 中國과 日本을 무력으로 개항하
게 하였는데 1840년 淸나라를 상대로 아편 전쟁을 일으켰던 英國은 그에 승리한
대가로 1842년 南京條約을 체결하여 홍콩을 할양받고 강제로 제 항구를 개항케
하더니 마침내 1860년 英佛 연합군이 北京마저 침공했다. 日本도 1854년 美國의
함포 위협아래 굴복하여 개항하지 않을 수 없었다.¹⁶⁾ 또한 北方에서는 러시아가
남하하여 연해주 일대를 자기의 영토로 확보하고 있었다. 위와 같이 동양은 서구
열강들의 세력의 각축장이 되어가고 있었고 이러한 소식이 국내에 전해지자 朝野
는 크게 불안해하였다. 이 같은 서양 세력의 영향은 조선에도 미쳐 서양인들이 충
청도 해안에 나타나서 무역을 요청하였고, 1845년에는 다도해 수역을 측량하는 동
시에 통상을 요구하였다. 또 이듬해인 1846년에는 프랑스 군함이 충청도 해안에
출현한 일도 있었다.¹⁷⁾ 이러한 일련의 사건은 민심을 크게 동요시키고 조정을 불
안케 하여 관민 모두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다.

14) 천재와 질병 조선후기 사회의 구조적 모순에서 오는 민중의 불안과 분노는 민란이란
형태로 전국 각지에서 봉기하였는 데 이에 대한 대강은 다음과 같다.

- 1800(순조 즉위) : 경상도 안동에서 60여명의 농민들이 관아 습격.
- 1808(순조 8년) : 함경도 단천에서의 농민들이 府使 축출 사건
- 1811(순조 11년) : 흥경래의 난.
- 1833(순조 33년) : 미곡상과 관리들의 농간으로 쌀값이 폭등하자 영세 시민들이 폭동.
- 1841(헌종 7년) : 경주 농민 수 백명 환곡을 부정하는 복합(伏閣) 상소.
- 1862(철종 13년) : 2월, 경상도의 진주 민란, 4월, 전라도 익산 군민 3천여명의 관아
난입 사건과 제주도에서 세 차례에 걸친 민란이 일어났으며, 이 밖에 같은 해에 전국에
걸쳐 모두 70여회의 농민 봉기가 있었다.

15) 東經大典, 詩文, 偶吟, 天道教中央總部.

16) 한우근(1983), 「東學農民蜂起」, 일조각, p.52.

17) 이기백(1979), 「한국사 신문」, 일조각, p.314.

이러므로 우리나라는 악질이 세상에 가득 차서 백성들이 언제나 편안할 때가 없으니 이 또한 상해의 운수요, 서양은 싸우면 이기고 치면 빼앗아 이루지 못하는 일이 없으니 천하가 다 멸망하면 또한 순망지탄이 없지 않을 것이라. 보국 안민의 계책이 장차 어디서 나올 것인가. 18)

그러나 당시의 위기 위식은 오랫동안 仇怨의 관계에 있던 日本의 침략¹⁹⁾으로 인하여 西勢의 침범 이상으로 더욱 위협적인 것으로 느껴지게 하였다.

가련(可憐)하다 가련하다 아국운수(我國運數) 가련하다
전세임진(前世壬辰) 몇해런고 이백사십 아닐런가
십이제국(十二諸國) 괴질운수(怪疾運數) 다시개벽(開闢) 아닐런가
요순성세(堯舜聖世) 다시와서 국태민안(國泰民安) 되지마는
기험(崎險)하다 기험하다 아국운수(我國運數) 기험하다
개같은 왜적(倭賊)놈아 너희신명 돌아보라
너희역시 하륙(下陸)해서 무슨은덕(恩德) 있었던고 ...(중략)
세상사람 뉘가알꼬 그역시(亦是) 원수(怨讐)로다²⁰⁾

이처럼 內憂外患으로부터 받았던 민심의 어지러움과 政治·社會的 불안과 동요 속에 민중을 구제하고 국가 안위의 방향을 염원하여 생성된 것이 바로 東學運動이며 思想이었던 것이다.

2) 思想的 背景

東學의 성립은 조선 후기의 정치·사회적 배경 외에 사상적 궁핍에서도 찾을 수 있다. 조선조의 在來思想으로는 儒敎·佛敎·道敎를 비롯하여 기타 民間信仰이 있었으나 기성의 사상은 민중들에게 아무런 전망과 구원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당시의 儒敎思想은 당쟁과 양반차별, 男·女 差別論의 合理化思想으로 활용되고 그로 인한 사회적 병폐가 극에 달하니 이미 實學과 같은 학문상의 큰 도전을 받

18) 東經大全, 布德文, 天道敎中央總部. “是故 我國惡疾滿世 民無四時之安 是亦傷害之數也 西洋戰勝功取 無事不成而 天下盡滅 亦不無辱亡之歎 輔國安民 計將安出 ”

19) 1875년(고종 12년) 9월 일본 군함 운양호와 우리나라 강화도 포대간에 일어난 포격 사건, 일명 강화도 사건, 이 사건의 결과 일본측의 강요에 의해 우리나라와 일본 양국 간에는 강화도 조약이 체결되어 비로소 근대 자본주의 국가에 대한 개국이 일어나게 되었다. 이흥직(1968), “운양호사건”, 『국사대사전』, 지문각, p.990.

20) 龍潭遺詞, 安心歌, 天道敎中央總部.

고 있는 무력한 사상이 되고 말았다. “佛敎思想 역시 조선 초부터 시작된 崇儒政
策에 밀려 이미 사회 교화적 기능을 기대하기 어려울 정도로 약화되어 버렸다. 道
敎 역시 風水圖讒思想化하여 토류와 민간에 유행하는 土俗信仰과 구분이 잘되지
못하였다.”²¹⁾ 오히려 壬辰倭亂 이후 조금씩 전파되어 오던 天主教가 강렬한 개화
매력을 타고 핍박 속에서도 민중 속으로 파고드는 것은 어쩔 수 없었으나 이것
역시 이질적인 사상으로부터 오는 위협은 민심을 동요하게 하는 요인이 아닐 수
없었다. 왜냐하면 그때의 민심은 마침 이 때 일어난 黃詞永 帛書 事件²²⁾으로 인하
여 天主教의 배후에 서양의 무력이 존재한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水雲은 이와 같은 총체적 사상 공동화 현상에 대하여

어찌이리 망극(罔極)하고 전만고(前萬古) 후만고(後萬古)를
역력히 생각해도 글도없고 말도없네
대저생령(大抵生靈) 많은사람 사람없어 이러한가
유도불도(儒道佛道) 누천년(累千年)에 운(運)이 역시(亦是) 다했던가²³⁾

라고 탄식하며 민중을 구원할 새로운 질서가 정립되기 위한 진통으로 보고 있
었다. 이와 같이 儒敎 규범을 비롯한 전통 사상들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결과
로 인한 사회질서의 문란과 西學(天主教)의 유입은 조선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민
족의 자긍심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으로 다가왔다.²⁴⁾

水雲이 東學을 세우게 된 데에는 이미 진부하여 생기를 잃어버린 儒·佛·仙과

21) 남궁용권(1983), 전계논문집, p.181.

22) 이흥직(1968), 「국사대사전」, 지문각, p.1783.

1801(순조 1년) 신유사옥 때, 천주교도 정약현(전약용의 만형)의 사위 황사영이 북경
에 있는 주교에게 국내의 혹독한 박해의 전말 보고와 그 대책을 기입한 밀서,
- 무력을 동원하여 조선을 억압하고 포교의 자유를 보장받아 달라는 내용으로 흰 비단
에 쓴 밀서를 보내려다 발각된 사건.

23) 龍潭遺詞, 敎訓歌, 天道敎中央總部.

24) 이에 대한 조선사회의 대응 양식은 위정척사 세력과 개화 세력의 형태로 나타나 나름
대로 민족의 자존과 변명을 추구하였다. 위정척사 세력은 시대적 요소는 있더라도 전통
문화의 순수성을 지키려는 의지를 나타냈고, 개화세력은 개화를 통해서만 구 체제의 정
체성에서 벗어나 民族 자존과 변명을 이룩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이들은 조급성과 과격성 또는 지나친 외세 의존적이라는 문제점을 갖고 있었다. 양원철
(2000), “東學思想의 倫理的 實踐에 관한 研究”, 석사학위논문,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p.13에서 재인용.

조선의 정신적 기반을 위협하는 西學(天主教)의 전래에 대한 위기 의식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다.²⁵⁾

문기를 「도가 같다고 말하면 西學이라고 이름합니까.」

대답하기를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또한 동에서 나서 동에서 받았으니 도는 비록 천도나 학인 즉 東學이라. 하물며 땅이 동서로 나뉘었으니 서를 어찌 동이라 이르며 동을 어찌 서라고 이르겠는가. 공자는 노나라에 나시어 추나라에 도를 뿜기 때문에 추로의 풍화가 이 세상에 전해 온 것이어늘 우리 도는 이 땅에서 받아 이 땅에서 뿜으니 어찌 가히 서라고 이름하겠는가.」²⁶⁾

水雲은 西學에 대해서는 대항의식을 가지면서도 한편으로는 부분적으로 수용하는 태도를 가졌다. 우선, 水雲은 西學에 대한 대항의식에서 자기가 받은 天道를 「東學」이라고 하였다. 그것은 서양인들의 침략행위와 그 종교를 결부시켜 西學에 반발을 일으킨 것은 그 당시의 일반적 풍조였으나 水雲은 「天主」의 보편적 존재를 인정하는 일은 東과 西의 차이가 없고, 일찍 늦음의 차이가 없이 인정된다고 하는 것이 그의 입장이었다.²⁷⁾



신유년에 이르러 사망에서 어진 선비들이 나에게 와서 문기를 「지금 천령이 선생님께 강림하였다 하니 어찌된 일입니까.」

대답하기를 「가고 돌아오지 아니함이 없는 이치를 받은 것이니라.」

문기를 「그러면 무슨 도라고 이름합니까.」

대답하기를 「천도이니라.」

문기를 「양도와 다른 것이 없습니까.」

대답하기를 「양학은 우리 도와 같은 듯하나 다름이 있고 비는 것 같으나 실지가 없느니라. 그러나 운인 즉 하나요 도인 즉 같으나 이치인 즉 아니니라.」²⁸⁾

25) 학계에서는 水雲이 세운 東學이 儒·佛·仙 삼교와 西學(천주교)을 수용하여 비판 수용하여 재구성하였다는 것이 통설이다. 반면, 최근에는 儒·佛·仙은 우리 고유의 전통사상이며 水雲에 와서 東學으로 설파되었다는 주장이 제기 되고 있다. 안창범(2000), “神仙道와 東學의 起源”, 「東學學報 創刊號」, 학영문화사, pp.203~228.

26) 東經大全, 論學文, 天道教中央總部. “曰同道言之則 名其西學也 曰不然 吾亦生於東 受於東道雖天道 學則東學 況地分東西 西何謂東 東何謂西 孔子生於魯 風於鄒 鄒魯之風 傳遺於斯世 吾道受於斯布於斯 豈可謂以西名之者乎 ”

27) 신일철(1980), “水雲의 歷史意識”, 「韓國思想叢書 IV」, 태광출판사, p.26.

28) 東經大全, 論學文, 天道教中央總部. “轉至辛酉 四方賢士 進我而問曰 今天靈降臨先生 何爲其然也 曰受其無往不復之理 曰然則何道以名之 曰天道也 曰與洋道無異者乎 曰洋學如斯而有異如呪而無實 然而運則一也 道則同也 理則非也 ”

이는 東學의 西學과의 공통점을 부분적으로 인정한 점으로, 특히 경전에서 거론되는 「天主」²⁹⁾라는 의미는 西學(天主教)의 영향을 예측할 수 있다.

이를 종합해 보면 東學은 당시의 사회적·사상적 위기에 직면하여, 사회 해체 현상과 사상적 혼돈을 극복하기 위하여 기존 사회의 질서를 개혁하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민족고유의 전통적인 「하늘」 숭배 사상을 기저로 하여 儒·佛·仙 三敎의 요소와 天主教의 내용 및 형식까지도 비판·수용하는 가운데 東學을 창도하게 된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과연 東學 사상의 구조가 과연 주체적이고 창의적인 사상이나? 하는 한계를 지적할 수 있다.

東學과 관련된 연구물들은 기존의 전통사상과 儒·佛·仙 三敎의 연계성을 검토한 후 주로 儒敎내의 宗教改革運動³⁰⁾으로 혹은 復古主義³¹⁾, 道敎³²⁾ 基督教의 변종³³⁾ 그리고 발전적인 것³⁴⁾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주장들은 나름의 근거와 일면 그 타당성을 지니고 있으나 東學 사상 뿐 아니라 교육적 측면에서 접근하여 그 의미를 고찰하기 위해서는 東學의 성장과 구도의 과정에서 기존의 제 사상과 새로운 사상(서학)을 비판 수용하였다는 측면에서 새롭게 확립한 계승적 측면과 창조적 측면이라는 시각에서 검토가 되어야 할 것이다.³⁵⁾

29) 東經大全, (先生呪文). " 侍 天主令我長生無窮無窮萬事知…… "

30) 조혜인(1990), "東學과 주자학: 유교적 종교개혁의 맥락", 「한국의 사회조직과 종교사상」, 문학과 지성사, pp.211~226.; 정대성(1999), 전개논문 p.8에서 재인용.

31) 한우근(1969), "東學思想의 基本構造", 「인문과학22집」, 연세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p.178~197.; 상계논문 p.8에서 재인용.

32) 나도광(1987), "東學과 도교", 「신인간 10월호」, 상계논문 p.8에서 재인용.

33) 윤성범(1964), 「기독교와 한국사상」, 한국기독교서회, p.226.; 상계논문 p.8에서 재인용.

34) 이상두(1979), "東學 평등사상과 전통적 민족사상과의 관계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대학원.; 상계논문 p.8에서 재인용.

35) 박맹수(1998), "東學과 전통종교와의 교섭", 「東學思想의 새로운 조명」, 영남대학교출판부, p.111~112.

2. 東學思想의 本質

東學은 한국사상 속에서 토착되어진 民間信仰과 기성 종교인 儒·佛·仙을 포괄적으로 종합, 비판, 수용하여 儒佛仙 合一思想을 이끌어 내고 있다.

조선시대의 지도 이념이자 생활 철학이었던 性理學은 실천적 규범이었지만 조선사회를 이끌어 내는 동안 사회의 변동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능력을 상실하였으며, 오랫동안 禮論에 치우치게 되므로 해서 經世의 학문으로서의 역할이나 이상적 학문으로서의 구실을 하지 못했다. 이에 대한 반성과 비판은 18세기경 일부 선각자 계층에서 일어난 양반사회의 모순과 비리 그리고 불합리 등을 제도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그 대안의 제시는 세계사적 발전 추이에 병행하는 새로운 思想體系이기도 하였다.³⁶⁾

이러한 사상적 발전 추이에 맞추어 19세기 조선사회는 새로운 倫理觀과 사상체계가 요구되었는데 이에 土着的이며 蘇塗的인 民族意識을 갖고 출현된 사상이 바로 東學思想이다.

東學의 기본사상은 인간의 尊嚴性, 民族主體性이라고 압축하여 볼 수 있다. 즉 인간을 인간답게 살도록 사회를 변화시켜야 하며 인간의 행복을 위하는 것이 국가의 모든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東學이 지니는 기본 성격은 민중의 안으로부터의 각성과 밖으로의 반항 즉 종교적 요소와 현실적 요소를 함께 지니면서도 궁극적으로는 그들의 자아에 대한 인간적인 自覺運動으로 이해 될 수 있을 것이다.

東學이 지닌 기본 핵심이 되는 사상적 特徵³⁷⁾은 다음과 같다.

첫째, 既成 外來 宗教가 아닌 獨自的인 우리 스스로의 眞理(學)임을 밝혔다.

둘째, 「사람은 곧 하늘」이라는 天心卽人心, 吾心卽汝心이라는 人乃天思想으로 집약될 것이다. 이는 인간은 운명적으로 貴賤의 낙인을 찍은 封建的 身分制度를

36) 이현희(1981), “東學思想의 배경과 그 의식의 성장”, 「한국사상 18집」, 경인문화사, p.77.; 김후래(1999), “東學 教育思想의 研究”, 석사학위 논문, 관동대학교교육대학원, p.11에서 재인용.

37) 이원호(1978), “동학사상의 측면에서의 한국교육사상”, 「한국교육사연구회발표집」, 한국교육사학회. p.52.

거부하고 萬民 平等觀에 터한 빈부 귀천이 선천적이 아니라는 인간의 존엄성을 확인한 自覺宣言이었다.

셋째, 輔國安民 思想으로 인간의 同歸一體를 표방해서 누란의 위기에 놓인 내 나라를 침략 세력과, 封建的 신분제도 때문에 박해받고 착취당하는 민중을 건지고 나라를 지키며 백성을 바로 살리자는 廣濟蒼生해서 布德天下하여 無爲而化 즉 地上天國의 실현을 기약하자는 現世主義的, 實踐的 理想主義를 표방했다는 점이다.

1) 人乃天 思想

東學思想의 人間觀은 ‘人乃天’으로 대표되는데 水雲의 侍天主思想이 海月の 事人如天의 汎天論을 거쳐 義菴에 와서 人乃天으로 표현되었다. 그러나 ‘東學’이 지칭하는 관련의 선행 연구가 다분히 대상이 없이 진행되었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東學=天道教’라는 인식이 깔려 있고, 1대 교주 水雲(侍天主)과 2대 海月(養天主), 3대 義菴(人乃天)의 사상적 특징이 그 근본에 있어서 차이가 없다는 가정을 무의식적 으로 받아들여 게 되는데,³⁸⁾ 그러나 ‘侍天主 = 人乃天’이라는 등식은 文法的 (主語-述語의 관계)으로도 성립하지 않고 有神論-無神論의 관계로도 볼 여지가 있게 된다.³⁹⁾ 그 변화의 양상은 侍天主→養天主→人乃天으로 발전된 것으로 보이며 이것은 東學의 사상적 극의로써 “한울님을 모심(侍天主)”은 “합기덕(合其德) 알았으니 무위이화(無爲而化) 알지마는” 이라 하여 天德과 人德이 다를 리 없고 人心과 天心이 둘일 수 없다는 「合氣德」 즉 무궁한 天地造化의 “밝고 밝은 그 德(明明其德)”⁴⁰⁾에 합하는 그 要道妙法으로로서의 이 侍天主의 자각, 바꿔 말하면 사람이면 누구나 “한울님을 모시고 있음(存在)”이라는 자각 위에 서고 있는 한 人間而化가 그대로 無爲而化⁴¹⁾인 것이다.⁴²⁾

38) 정대성(1999), 전계논문 p.1.

39) 이 점과 관계하여 신일철은 水雲의 侍天主 思想과 그 후 보다 汎神論의 으로 흘러 보다 세속화 된 海月の 物物天 事事天, 養天主思想과 일단 구별된다고 하였으며, 신일철(1982), “崔水雲의 歷史 認識”, 「한국思想총서 IV」, P.32.; - 水雲과 海月, 義菴의 神觀이 갖는 성격을 보여주는 侍天主, 養天主, 人乃天의 관계는 侍天主≠養天主, 侍天主≠人乃天으로 구분되며 각각 뚜렷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으며, 전체적으로 하나의 신관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변화의 관점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하였다. 정대성(1999), “水雲 崔濟愚의 教育思想에 관한 研究”,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p.2에서 재인용

40) 東經大全, 論學文, 天道教中央總部.

41) 東經大全, 論學文, 天道教中央總部. “曰吾道無爲而化矣 守其心正其氣 率其性受其教 化出於

무릇 천도란 형상이 있는 것 같으나 자취가 있고...(중략)
음과 양이 서로 고루어 벌고 백천만물이 그 속에서 화해 나지마는 오직 사람이
가장 신령한 것이니라.⁴³⁾

하여 '養天主'⁴⁴⁾나 '人乃天'⁴⁵⁾이니 하는 설들은 모두 사람은 한울님을 모시고
있음(侍天主)이라는 존재의 자각 위에서만 가능함을 볼 수 있다.⁴⁶⁾

水雲이 “한울의 마음이 곧 사람의 마음이다”⁴⁷⁾라는 原初的 人間觀은 후에 西歐의
哲學 특히 사회 進化論의 영향을 받아 그러한 사조가 상당히 수용되었을 것이라
는 사실이다.⁴⁸⁾ 그러므로 人乃天은 20세기초 西洋 文物이 본격적으로 들어왔고 開
化의 요구가 어느 때보다 높아진 시기에 그 시대의 사상적 潮流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⁴⁹⁾

따라서 人乃天 思想은 한국인의 傳統的 敬天思想을 그 모체로 한 侍天主 思想
이 논리적으로 발전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東學의 人乃天 思想은 ‘사람이 곧 하늘’이라 하여 사람을 인격적 존재로 보았다
는 점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강조한 人間中心 思想이라고 할 수 있다.

自然之中也” 우리 도는 無爲而化라. 그 마음을 지키고 그 기운을 바르게 하고 한울님 성품을
거느리고 한울님의 가르침을 받으면, 자연한 가운데 화해나는 것이요.

- 42) 조용일(1985), “東學의 造化思想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대학원, p.29.
43) 東經大全, 論學文, 天道教中央總部. “夫天道者 如無形而有迹...(중략) 陰陽相均 雖百千萬物
化出於其中 獨惟人最靈者也”
44) 神師法說二十五, 養天主, 天道教中央總部. “ 한울을 養할 줄 아는 者라야 한울을 모실 줄
아나니라. 한울이 내 마음 속에 있음이 마치 種子의 生命이 種子속에 있음과 같으니, 種子를
땅에 심어 그 生命을 養하는 것과 같이 사람의 마음은 道에 依하여 한울을 養하게 되는 것이
라. 같은 사람으로도 한울이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은 이는 種子를 물속에 던져 그 生命
을 滅亡케 함과 같아서, 그러한 사람에게는 終身토록 한울을 모르고 살 수 있나니, 오직 한울
을 養한 자에게 한울이 있고 養치 않는 者에게는 한울이 없나니, 보지 않느냐, 種子를 심지
않은 者 누가 穀食을 얻는다고 하더냐.”
45) 神師法說二十二, 天語, 天道教中央總部. “ 내 恒常 말할 때에 天語를 이야기 하였으나 天語
가 어찌 따로 있으리오. 人語가 곧 天語이며 鳥聲도 亦是 侍天主의 聲이니라. 그러면 天語와
人語의 區別은 어디서 分別되는 것이냐하면, 天語는 大概 降話로 나오는 말을 이름인데 降話
는 사람의 私慾과 感情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요, 公理와 天心에서 나오는 것을 가리킴이니,
말이 理에 合하고 道에 通한다 하면 어느 것이 天語 아님이 있겠느냐.”
46) 조용일(1985), 상계논문, p.29.
47) 東經大全, 論學文, 天道教中央總部. “ 天心卽人心則 吾心卽汝心也”
48) 이종우(1996), “東學의 人間觀에 대한 研究”, 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p.6.
49) 이경희(1985), “人乃天의 연원을 찾아서”, 「신인간 1월호」, P.23.

이처럼 人乃天에서 말하는 ‘天’은 통속적 개념과는 달리 어느 부분을 이름이 아니고 전체를 이르는 말로서 단순히 초월적 의미를 가졌다기보다는 만물에 내재하는 원인의 의미가 강하다.⁵⁰⁾

東學의 인간 존중 사상에 대하여 “人乃天 思想보다 더 어디서 인간의 존엄성을 고조하는 사상을 찾을 것인가?”⁵¹⁾ 하여 人乃天 思想을 높이 평가하였는데 人乃天 思想은 다음과 같은 본질을 이루고 있다.

첫째, 人間 主體 思想으로 하늘 마음이 곧 사람 마음이기 때문에 인간은 우주에 있어서 최고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人間性이 곧 宇宙 本性의 구체적 표현이라는 것이다.

둘째, 인간에 대한 존엄성과 자유·평등 이념을 깨우친 人間 平等 理念으로써 조선의 封建的 制度를 타파하는 역할을 하였으며

셋째, “吾心即汝心”의 神 本位, 神 中心 思想에서 人間本位 思想적 전환을 의미하여 인간성과 자연에 기인한 새 제도와 윤리를 건설한다는 것이다.

넷째, 인간이 인간을 賤待하던 과거 역사 즉 人乃賤에 대한 항거이자 ‘同歸一體’⁵²⁾의 國家觀과 世界觀으로 발전한 精神的 改革이자 革命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人乃天 思想’은 개개인의 인격의 완전한 해방과 사회생활의 완전한 해방이라고 할 수 있고 따라서 궁극적 이상은 地上天國의 現實的 來世觀이다.⁵³⁾

東學의 侍天主, 人是天,⁵⁴⁾ 事人如天⁵⁵⁾, 人乃天 思想의 개념들 속에는 민주적 平

50) 이돈화(1963), 「신인철학」, 일신사, P.18.

51) 이흥우(1980), 「윤리학과 교육」, 교육과학사, P.60.

52) 龍潭遺詞, 勸學歌, 天道教中央總部.

“시운(時運)을 의논(議論)해도 일성일쇠(一盛一衰) 아닐런가
쇠운(衰運)이 지극(至極)하면 성운(盛運)이 오지마는
현숙(賢淑)한 모든군자(君子) 동귀일체(同歸一體) 하였던가
어렵도다 어렵도다 만나기도 어렵도다.”

53) 조지훈(1964), 「한국문화 서설」, 탐구당, p.127. ; 한동운(1994), 상계논문에서 재인용.

54) 神師法說, 天地人·鬼神·陰陽, 天道教中央總部. “人是天天是人 人外無天天外無人 心在何方在於天 天在何方在於心故 心即天天即心 心外無天天外無心 天與心本無二物 心天相合 方可謂侍定知 心天相違則 人皆曰侍天主 吾不謂侍天主也.” 사람이 바로 한울이요 한울이 바로 사람이니, 사람 밖에 한울이 없고 한울 밖에 사람이 없느니라. 마음은 어느 곳에 있는가 한울에 있고, 한울은 어느 곳에 있는가 마음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마음이 곧 한울이요 한울이 곧 마음이니, 마음 밖에 한울이 없고 한울 밖에 마음이 없느니라. 한울과 마음은 본래 둘이 아닌 것이니 마음과 한울이 서로 화합해야 바로 시·정·지라 이를 수 있으니, 마음과 한울이 서로 어기면 사람이 다 侍天主라고 말할지라도 나는 侍天主라고 이르지 않으리라.

55) 神師法說, 待人接物, 天道教中央總部. “人是天 事人如天 吾見諸君 自尊者多矣 可嘆也 離道

等思想, 人權思想이 내포되어 있어서 19세기 封建的 階級制度 속에 억압당하고 신음하던 민중들에게 구 질서에서 새로운 질서로 사회를 변혁, 개조하는 ‘後天開關’의 사상으로 받아들여졌다.

2) 開關 思想

조선 후기 전통 사상은 민중 구제의 그 생명력을 잃어가고 서양 세력의 침투로 인한 문화적 충격과 中華 文化圈의 해체 위기 등으로 政治, 經濟, 社會는 급변하고 기존의 질서가 무너져 가고 있었으며 李氏王朝의 몰락을 예견하고 鄭氏의 王朝를 예견하는 鄭鑑錄이 유행되면서 민심은 흉흉하게 되었으며 농촌 사회는 피폐되어 백성들의 불안감이 팽배한 상태에서 국가 존폐의 위기감은 날로 커져 가고 있었다.

십이제국(十二諸國) 괴질운수(怪疾運數) 다시開關(開關) 아닐런가

태평성세(太平聖世) 다시정(定)해 국태민안(國泰民安) 할것이니

개탄지심(慨歎之心) 두지말고 차차차차 지냈어라.⁵⁶⁾

십이제국 괴질운수란 표현의 괴질운수 역시 周易의 世界觀에 기초한 盛衰之理에서 나온 것으로 이제는 기성 왕조나 기성 가치체계가 衰運期에 이르렀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새로운 天運을 맞이할 ‘後天開關’을 주창하게 된 것이다.

개벽이란 한울이 떨어지고 땅이 꺼져서 혼돈한 한 덩어리로 모였다가 자·축 두 조각으로 나뉘임을 의미함인가. 아니다.

개벽이란 부패한 것을 맑고 새롭게, 복잡한 것을 간단하고 깨끗하게 함을 말함이니, 天地 만물의 개벽은 공기로써 하고 인생 만사의 개벽은 정신으로써 하나니, 너의 정신이 곧 天地의 공기이니라. 지금에 그대들은 가히 하지 못할 일을 생각지 말고 먼저 각자가 본래 있는 정신을 개벽하면, 만사의 개벽은 그 다음 차례의 일이니라.⁵⁷⁾

者自此而生 可痛也 吾亦有此心 生則生也 不敢生此心也 天主不養吾心也-恐也

56) 龍潭遺詞, 夢中老少問答歌, 天道教中央總部.

57) 聖師法說, 人與物開關說, 天道教中央總部. “開關이라 함은 天墜地陷하여 混沌一塊로 合하였다가 子丑의 兩段으로 分함을 意味함인가 아니다 開關이란 腐敗한 者를 清新케 複雜한 者를 簡潔케 함을 謂함이니 天地萬物의 開關은 空氣로써 하고 人生萬事의 開關은 精神으로써 하나니 汝의 精神이 곧 天地의 空氣니라 今에 君等은 不可能의 事를 思치말고 先히 各者 固有의 精神을 開關하면 萬事의 開關은 次第의 事니라.”

東經大全과 龍潭遺詞에는 運, 家運, 時運, 天運 등의 단어가 자주 등장하는데 “東學에서의 時運觀은 易의 循環論에서 반복되는 盛衰의 운명적인 순환 운동에 입각해서 盛運이 盡하면 衰運이 온다는 필연성에 대한 대망과 아울러 그 運의 교체가 곧 天命이 갈아드는 것으로 해석하는 孟子 이래의 天命思想에 바탕을 두고 있다.”⁵⁸⁾

성한 것이 오래면 쇠하고 쇠한 것이 오래면 성하고, 밝은 것이 오래면 어둡고 어두운 것이 오래면 밝나니 성쇠명암은 천도의 운이요, 흥한 뒤에는 망하고 망한 뒤에는 흥하고, 길한 뒤에는 흉하고 흉한 뒤에는 길하나니 흥망길흉은 인도의 운이니라. ⁵⁹⁾

이러한 과정 속에서 天命循環論은 절망적 현실에서 비롯된 민중들의 미래에 대한 동경을 나타낸다. 이와 같이 東學이 추구한 이상사회는 開關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 타락된 기존의 질서를 부정하고 새로운 사회질서를 요구하며 인간성의 회복과 역사적 위업 달성이 곧 後天開關 思想이며 실천이라고 믿었다.⁶⁰⁾

한울님 하신말씀 개벽후(開關後) 오만년(五萬年)에
네가또한 침이로다 나도또한 개벽이후
노이무공(勞而無功) 하다가서 너를만나 성공(成功)하니
나도성공 너도득의(得意) 너희집안 운수(運數)로다.⁶¹⁾

여기서의 後天開關은 위의 글에서 보듯이 한울님이 이루어 놓은 先天의 開關이 아닌 東學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開關으로 보았다.

이것은 水雲의 역사관과도 연결되는데 水雲의 역사관은 時運(時世의 運數)의 역사감각을 가지고 易에 기초한 循環史觀을 바탕에 깔면서도 開關이란 변혁에 중점을 둔 革命思想이다. 그의 革命思想은 시운에는 盛衰가 있다는 변화에의 대망을 가지고 왕조의 衰運이 至盡하여 開關될 것을 예언하고 있다. 또한 水雲은 왕조를 포함하여 양반사회 질서가 고정 불변적이 아니고 변혁되어야 할 自然法的 필연성

58) 신일철(1975), 「한국의 민족 종교사상」, 삼성관, p.269. ; 한동운(1994), “동학사상의 이데올로기적 분석”,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대학원, p.18에서 재인용.

59) 神師法說15, 開關運數, 天道教中央總部. “盛而久則衰 衰而久則盛 明而久則暗 暗而久則明 盛衰明暗 是天道之運也 興而後亡 亡而後興 吉而後兪 兪而後吉 興亡吉兪 是人道之運也 ”

60) 이현희(1989), 「수운의 개벽사상 연구」, 청아출판사, pp.54~55. ; 이현동(1993), “동학의 교육관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대학원, p.45에서 재인용.

61) 龍潭遺詞, 龍潭歌, 天道教中央總部.

을 역설했다. 그 변혁 중에서도 일대 변혁이 ‘後天開關’으로 그의 역사관에 있어서 결정적 전환점은 庚申 4월 5일의 東學의 唱導요, 이것이 가장 의의 있는 역사적 대 사건이 된다. 이 東學大覺을 분기점으로 해서 그 이전이 先天이고 그 이후가 後天開關의 세상이다. 이는 마치 서양에 있어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그 탄생이 계시되지 않은 暗黒期와 계시되고 구제의 길이 열린 光照期의 분기점으로 보는 것과 같다.⁶²⁾

東學의 역사관은 역사적 세계인 ‘天下’라는 보편적 세계에서 ‘我國運數’에 관심을 돌려 주체적으로 민족사 단위인 ‘我國의 歷史’를 논하고 있다.

東學의 역사관 중 가장 결정적인 역사 예언은 李氏王朝 몰락의 필연성을

하원갑(下元甲) 지내거든 상원갑(上元甲) 호시절(好時節)에
만고(萬古)없는 무극대도(無極大道) 이세상에 날것이니
여기서 너는 또한 연천(年淺)해서 억조창생(億兆蒼生) 많은백성
태평곡(太平曲) 격양가(擊壤歌)를 불구(不久)에 불 것이니
이세상 무극대도(無極大道) 전지무궁(傳之無窮) 아닐런가.⁶³⁾

여기서 下元甲은 한 王朝의 운이 끝나는 시기에 해당하고 다시 새 王朝가 교체되면서 上元甲이 시작되는 것으로 풀이된다.⁶⁴⁾

후천개벽의 시기에 처한 우리는 먼저 각자의 성령과 육신부터 개벽해야 하느니라.

만일 자기의 성령 육신을 자기가 개벽하지 못하면 포덕 광제의 목적을 어떻게 달성 하겠느냐. 대신사 말씀하시기를 「한울님께 복록정해 수명을랑 내게비네」 하셨으니 이것은 몸으로써 성령을 바꾸어야 한다는 말씀이니라.

한울이 있음으로써 물건을 보고, 한울이 있음으로써 음식을 먹고, 한울이 있음으로써 길을 간다는 이치를 투철하게 알라.⁶⁵⁾

62) 신일철(1989), 「崔水雲의 역사의식」, 「東學思想과 東學革命」, 청아출판사, pp.23~24.

63) 龍潭遺詞. 夢中老少問答歌, 天道教中央總部.

64) 한우근(1970), 「동양사상의 배태」, 국사편찬위원회, p.374.

65) 聖師法說, 以身換性說, 天道教中央總部. “誠心修煉으로 본래의 性を 바꾸라 後天開關의 時期에 處한 우리는 먼저 各自의 性身부터 開關해야 하나니라 만일 自己의 性身을 自己가 開關치 못하면 布德廣濟의 目的을 어떻게 達成할 것이나 大神師이르시되 「한울님께 福祿定해 壽命을랑 내게 비네」 하셨으니 이것은 以身換性을 말씀하神 것이니라 한울이 있으므로 物件을 보고 한울이 있으므로 飮食을 먹고 한울이 있음으로써 길을 간다는 理致를 透徹히 알라. 성심 수련으로 본래의 성품을 바꾸라.”

이상과 같이 東學의 開關思想은 인류문화의 혁신과 창건을 의미하며 天地 開關에 비유할 만한 人文開關이 실현됨으로써 地上天國을 실현시키라는 것으로 세 가지 開關을 과제를 남겨두었으니 그것이 곧 精神開關, 民族開關, 社會開關인 것이다.

‘精神開關’이란 일종의 사상 개조를 말하는 것으로 모든 開關의 준비에는 두 가지 법칙이 필요한데 하나는 사람성과 자연에 대한 역사적 고찰로 역사적 원인에 대하여 장래의 결과를 고찰하면서 냉철한 의지로써 사리의 시비곡절을 가릴 줄 아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反抗道德이라는 것으로 기존의 윤리나 정제 안에서의 결함을 감정과 의지로써 극복하여 정도를 찾아가는 것이다.⁶⁶⁾

‘民族開關’이란 민족의 문화와 생활정도를 민족의 문화와 생활 정도를 향상 발전시키자는 것으로 여기서 민족의 의미는 民族的 利己主義가 아니라 인류 주체의 실현을 위한 과도기적인 기초작업으로 세계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民族主義를 말한다.

‘社會開關’이란 이상적 낙원세계 건설을 의미하는 것으로 진실한 理想世界는 唯物的 경제 문제 해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最高 人格性으로부터 宇宙 生活을 실현하는데 있는 水雲의 理想天國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

이처럼 東學은 開關思想을 통하여 人間平等의 近代的 市民社會를 대망한 유토 피아적 미래 사회상을 제시하였다.

3) 輔國安民 思想

思想史的으로 볼 때 東學思想은 낡은 王朝文明에 종언을 고하고 무너져 가는 동아시아 질서를 ‘天下’에 대치될 수 있는 새로운 가치관인 ‘輔國安民’의 모색이었다. 그 점에서 水雲은 서구문명의 침투와 근대적 민족국가 형성을 위한 思想運動의 시대적 선각자로서 고민하였고 輔國安民, 布德天下, 廣濟蒼生의 슬로건을 통해서 낡은 지배층에 대치될 수 있는 輔國의 주체로서의 민중의 대두를 예견하였다.

水雲은 양반 사회에서 소수 특권층이 감당했던 ‘輔國安民’의 과제를 아래로부터

66) 이돈화(1968), 「신인철학」, 천도교중앙본부, pp.147~150.; 김점권(1997), “東學의 아동존중사상과 교육”, 석사학위논문, 경상대학교교육대학원, p.14.; 김후래(1999), “東學教育思想의 연구” 석사학위논문, 관동대학교 교육대학원, p.16.; 이현동(1993), 전계논문p.48에서 재인용.

널리 민중의 것으로 만들었고, 侍天主 思想을 통해 소외되었던 민중들을 내면적으로 한울님을 모신 君子로 거듭 탄생하게 한 것이다.⁶⁷⁾

東學의 輔國安民의 실천은 德治에 의한 地上天國 건설에 그 방향을 두었고 정치적으로는 나라의 안전에 그 목표를 두어 외세의 침략을 배제할 수 있는 민족의 역량을 키워 백성을 편안하게 하려는 것으로 이 정신이 東學革命을 일으켰고 三一獨立萬歲運動을 일으켰으며 日帝의 가혹한 탄압 속에서도 민족의 獨立과 開化를 위한 文化活動과 教育活動을 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러므로 우리 나라는 악질이 세상에 가득 차서 백성들이 언제나 편안할 때가 없으니 이 또한 상해의 운수요, 서양은 싸우면 이기고 치면 빼앗아 이루지 못하는 일이 없으니 천하가 다 멸망하면 또한 순망지탄이 없지 않을 것이라.
보국 안민의 계책이 장차 어디서 나올 것인가.⁶⁸⁾

시운(時運)을 의논(議論)해도 일성일쇠(一盛一衰) 아닐런가
쇠운(衰運)이 지극(至極)하면 성운(盛運)이 오지마는
현숙(賢淑)한 모든군자(君子) 동귀일체(同歸一體) 하였던가
어렵도다 어렵도다 만나기도 어렵도다
방방곡곡(方方谷谷) 찾아들어 만나기만 만날진댄
흉중(胸中)에 품은회포(懷抱) 다른할말 바이없고
수문수답(隨問隨答) 하온후에 당당정리(堂堂正理) 밝혀내어
일세상(一世上) 저인물(人物)이 도탄중(塗炭中) 아닐런가
함지사지(陷之死地) 출생(出生)들아 보국안민(輔國安民) 어찌할꼬.⁶⁹⁾

여기에서 유의할 점은 ‘보국’을 사용할 때 지킬 ‘保’자 대신 도울 ‘輔’자를 사용한 점이다. 따라서 ‘輔國安民’의 輔國은 나라를 돕는 다는 뜻이요, 安民은 백성을 평안하게 살도록 한다는 뜻이다. 나라를 돕는다는 뜻은 나라의 주권을 튼튼하게 보위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점에서 國家觀, 民族觀을 포함하고 있다고 하겠고 安民은 백성을 평안하게 한다는 점에서 도탄에 빠진 민중을 구제하려는 의식이 강하게 포함되어 있다 하겠다.⁷⁰⁾ 이와 같이 東學은 民族主義와 연결된 것으로 東學

67) 신일철(1989), 전계서, pp.11~12.

68) 東經大全, 布德文, 天道教中央總部. “是故 我國惡疾滿世 民無四時之安 是亦傷害之數也 西洋戰勝功取 無事不成而 天下盡滅 亦不無辱亡之歎 輔國安民 計將安出 ”

69) 龍潭遺詞, 勸學歌, 天道教中央總部.

70) 이강일(1992), “東學의 人本主義 教育思想”,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대학원, p.18.

성립 당시 朱子學的 名分論과 事大思想에 대한 저항이 實學思想을 거침으로써 民族主義 주장을 더욱 성숙하게 하는 내재적 명분이 되었던 것이다. 외적 요인으로서는 서양 세력에 의한 두려움이 東學으로 하여금 민족자주의 가치를 높이 들게 한 직접적 원인이 되었다. 東學이 자기의 도를 ‘東學’⁷¹⁾이라 한 것도 이런 學은 이런 조국의 위기를 절감하면서 輔國安民의 國難打開을 위한 것이라 볼 수 있다.⁷²⁾

이 東學의 民族主義的 思想은 그 특유의 일면이 민주 사상과도 연관되는 것임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즉 이들 양자는 서로 모순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는데 東學이 民族主義 思想으로서의 현대적 세계사적 의의가 있는 것이다.⁷³⁾

이와 같이 東學의 輔國安民 思想은 我國運數를 보전하는 역할로써 근대적 의미에서의 민족주의를 이 땅에 형성·발전시킨 원동력이 되었으며 민족의 통일을 위한 올바른 민족주의 형성에 기여할 것이다.



71) 東經大全, 論學文, 天道教中央總部. “曰同道言之則 名其西學也 曰不然 吾亦生於東 受於東道 雖天道 學則東學 況地分東西 西何謂東 東何謂西 孔子生於魯 風於鄒 鄒魯之風 傳遺於斯世 吾道受於斯布於斯 豈可謂以西名之者乎” 문기를 「도가 같다고 말하면 西學이라고 이름합니다.」 대답하기를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또한 동에서 나서 동에서 받았으니 도는 비록 천도나 학인 즉 東學이라. 하물며 땅이 동서로 나뉘었으니 서를 어찌 동이라 이르며 동을 어찌 서라고 이르겠는가. 공자는 노나라에 나시어 추나라에 도를 뵈기 때문에 추로의 풍화가 이 세상에 전해 온 것이어늘 우리 도는 이 땅에서 받아 이 땅에서 뵈었으니 어찌 가히 서라고 이름하겠는가.」

72) 이현동(1993), 전계논문, p.43.

73) 노태구(1989), “東學의 政治思想”, 「東學思想과 東學革命」, 청아출판사, pp.176~178.

Ⅲ. 東學 教育思想의 基礎

우리는 앞에서 교육은 文化的 社會的 기능이라는 廣義의 觀點에서 이해될 뿐 아니라 현대사회에 나타나는 교육적 문제들은 우리의 전통적 입장과 분리하여서는 바르게 인식될 수 없으며, 그러한 문제들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그 사상적 관련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것은 그 교육적 사실 속에 '思想的 뿌리'가 살아있기 때문이라는 교육현상을 과거와 미래의 단절이 아닌 일련의 교육적 연결로 보는 입장을 취하였다. 이러한 입장에서 東學은 그 기본 성격에 있어 민중의 자각 운동인 동시에 이를 위한 教育運動으로서의 의의를 지니게 됨에도 불구하고 “宗敎的 要素와 革命的 要素로 압축되는 양립적 東學 연구의 접근방법에 연유하여”⁷⁴⁾ 教育 實踐 思想으로서의 면모를 갖추지 못하였다. 어느 것이나 東學思想에 내포된 하나의 기본적 요소임에는 틀림없으나 東學思想은 現世的⁷⁵⁾이라는 특징을 지니고 있어 교육사상으로 정립되기 위해서는 이들 요소를 포괄적으로 파악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말하자면 東學은 교문중심의 단순한 종교적 표현이나 사회개혁을 위한 일시적 수단으로서만 이해 될 것이 아니라 “민중의 각성을 통한 조직적 표현으로써”⁷⁶⁾ 파악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東學의 민중 敎化적 요소도 교육적 표현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1. 宇宙觀

東學思想은 정신을 개벽하고 삶의 총체적 양식을 달리하는 데 관심이 집중되

74) 이영중(1993), “東學教育思想에 관한 研究”, 석사학위논문, 관동대학교교육대학원, p.20.

75) 다분히 민중적 성격을 띠고 있는 동학은 민족주의적이면서도 민중의 의식을 크게 계발하고 생활 상태를 근대적인 것으로 개선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동학은 민족주의적, 민중적, 그리고 근대적이라 할 수 있다.

76) 최동희(1983), 「水雲의 人間觀」, 천도교중앙총본부, p.86.

있기 때문에 자연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활용하는 측면은 보기 힘든 반면에 자연을 독립된 대상이 아닌 하늘과 땅과 인간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 무대로 생각하였다고 할 수 있다.⁷⁷⁾ 水雲은 사람을 비롯한 식물, 동물계 모든 宇宙萬象은 살아 있으며 하나의 統一體로 존재한다고 보았으며 또한 자연을 ‘한울님의 자취’라고 보았다.

저 옛적부터 봄과 가을이 갈아들고 사시가 성하고 쇠함이 옮기지도 아니하고 바뀌지도 아니하니 이 또한 한울님 造化의 자취가 천하에 뚜렷한 것이로되,

사시성쇠와 풍로상설이 그 때를 잃지 아니하고 그 차례를 바꾸지 아니하되 여로창생은 그 까닭을 알지 못하여 어떤 이는 한울님의 은혜라 이르고 어떤 이는 造化의 자취라 이르나, 그러나 은혜라고 말할지라도 오직 보지 못한 일이요 造化의 자취라 말할지라도 또한 형상하기 어려운 말이라.

어찌하여 그런가. 옛적부터 지금까지 그 이치를 바로 살피지 못한 것이니라. ⁷⁸⁾

水雲이 지은 “至氣今至願爲大降 (지기금지원위대강) 侍 天主造化定永世不忘萬事知 (시 천주造化정영세불망만사지)”⁷⁹⁾의 뜻을 至氣論⁸⁰⁾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 속에 그의 宇宙觀과 人生觀이 압축되어 표현되어 있다.⁸¹⁾

첫째, 天地의 근본은 물질도 靈도 아니고 至氣의 전 능력으로 발생·진화하여

77) 김춘성(2000), “동학의 자연과 생태적 삶”, 「동학학보 창간호」, 동학학회, p.135.

78) 東經大全, 布德文, 天道教中央總部. “蓋自上古以來 春秋迭代四時盛衰 不遷不易 是亦天主造化之迹 昭然于天下也”

東經大全, 論學文, “四時盛衰 風露霜雪 不失其時 不變其序 如露蒼生 莫知其端 或云天主之恩 或云化工之迹 然而以恩言之 惟爲不見之事 以工言之 亦爲難狀之言 何者 於古及今 其中未必者也”

79) 東經大全, 降靈呪文, 天道教中央總部.

80) 東經大全, 論學文, 天道教中央總部. “曰降靈之文 何爲其然也 曰至者 極焉之爲至 氣者虛靈 蒼蒼 無事不涉 無事不命 然而如形而難狀 如聞而難見 是亦渾元之一氣也 今至者 於斯入道 知其氣接者也 願爲者 請祝之意也 大降者 氣化之願也” 문기를 「강령의 글은 어찌하여 그렇게 됩니까」

대답하기를 「지」라는 것은 지극한 것이요

「기」라는 것은 허령이 창창하여 일에 간섭하지 아니함이 없고 일에 명령하지 아니함이 없으나, 그러나 모양이 있는 것 같으나 형상하기 어렵고 들리는 듯하나 보기는 어려우니, 이것은 또한 혼원한 한 기운이요

「금지」라는 것은 도에 들어 처음으로 지기에 접함을 안다는 것이요

「원위」라는 것은 청하여 비는 뜻이요

「대강」이라는 것은 기화를 원하는 것이니라.

81) 정지연(1995), “東學의 敎育思想에 관한 研究”, 인천대학교교육대학원, p.17.

현상계에서는 두 방향으로 진화되어 안으로는 靈的인 것이 되고 밖으로는 물질적인 것이라고 하여 億千萬物이 개별적으로 분화되기 이전의 우주의 본체를 ‘虛卽氣, 氣卽虛’로 설명하였다.

둘째, 어디든지 간섭하지 않는 일이 없고 명령하지 않는 일이 없다는 것은 우주 안에 개별적으로 흩어져 존재하는 모든 것은 至氣 본체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이다.

셋째, 形容이 있는데 形象할 수는 없으며 들을 수는 있는데 볼 수 없다는 것은 그것을 개별적으로 따로 떼어서는 도저히 그 근본 원리를 알아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水雲은 자연의 운행을 한울님의 ‘無爲而化’⁸²⁾의 造化로 보았다. “우주라는 것은 우리말의 ‘한울’이라고 하고 ‘한’은 크고 무궁한 것이요. ‘울’은 양적 범위를 말하는 것인데 宇宙는 양적 한울과 더불어 至氣라는 질적 한울로 이루어진 실체라 하였다.”⁸³⁾

따라서 至氣는 우주의 궁극적 본체로 그것은 정신과 물질이 混元一體된 것으로 우주와 세계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생명체를 이루고 있다고 생각하므로 즉 至氣는 우주의 본성인 동시에 인간의 본성이기도 하고 세계의 본성이기도 하다.

우주의 중심이 되는 神(天主)이 존재하느냐, 존재한다고 하면 어떠한 형태로 존

82) 東經大全, 論學文, 天道教中央總部. “侍者 內有神靈 外有氣化 一世之人 各知不移者也 主者 稱其尊而與父母同事者也 造化者 無爲而化也 定者 合其德定其心也 永世者 人之平生也 不忘者 存想之意也 萬事者 數之多也 知者 知其道而受其知也故 明明其德 念念不忘則 至化至氣 至於至聖 ”

「시」라는 것은 안에 신령이 있고 밖에 기화가 있어 온 세상 사람이 각각 알아서 옮기지 않는 것이요

「주」라는 것은 존칭해서 부모와 더불어 같이 섬긴다는 것이요

「造化」라는 것은 無爲而化요

「정」이라는 것은 그 德에 합하고 그 마음을 정한다는 것이요

「영세」라는 것은 사람의 평생이요

「불망」이라는 것은 생각을 보존한다는 뜻이요

「만사」라는 것은 수가 많은 것이요

「지」라는 것은 그 도를 알아서 그 지혜를 받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그 德을 밝고 밝게 하여 늘 생각하며 잊지 아니하면 지극히 지기에 화하여 지극한 성인에 이르느니라.

83) 이향녕(2002), “東學의 宇宙觀” 「東學革命백주년기념논총」, <http://www.chondogyo.or.kr/> 논문자료에서 인용.

재하느냐 하는 것은 유사 이래 많이 논의되어 왔다. 농경사회의 동방에서는 자연을 숭배하고 자연의 주재자인 하느님을 믿었는데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하느님을 中國에서는 上帝라 하였고 우리나라에서는 하느님(한울님, 하나님)이라고 하였다. “上古에서는 하느님을 超越的 人格神으로 믿었으나 性理學의 合理主義로 超越的 人格神 思想은 쇠퇴하였다.”⁸⁴⁾

무릇 천도란 것은 형상이 없는 것 같으나 자취가 있고, 지리란 것은 넓은 것 같으나 방위가 있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한울에는 구성이 있어 땅의 구주와 응하였고 땅에는 팔방이 있어 팔괘와 응하였으니, 차고 비고 서로 같아드는 수는 있으나 동하고 정하고 변하고 바뀌는 이치는 없느니라.

음과 양이 서로 고루어 비록 백천만물이 그 속에서 화해 나지마는 오직 사람이 가장 신령한 것이니라. ⁸⁵⁾

水雲은 사람만이 가장 神靈한 것이라 하여 그 神 자체가 다른 것은 아니고 안에 있는 神靈과 밖에 있는 氣化가 侍로써 일체가 되어 神人一體의 경지를 이루었다고 보았다.



만물이 侍天主 아님이 없으니 능히 이 이치를 알면 살생은 금지 아니해도 자연히 금해지리라. 제비의 알을 깨치지 아니한 뒤에라야 봉황이 와서 거동하고, 초목의 싹을 꺾지 아니한 뒤에라야 산림이 무성하리라. 손수 꽃가지를 꺾으면 그 열매를 따지 못할 것이요, 폐물을 버리면 부자가 될 수 없느니라. 날짐승 삼천도 각각 그 종류가 있고 털벌레 삼천도 각각 그 목숨이 있으니, 물건을 공경하면 덕이 만방에 미치리라.⁸⁶⁾

마음이란 것은 내게 있는 본연의 한울이니 천지만물이 본래 한마음이니라. 마음은 선천 후천의 마음이 있고 기운도 또한 선천 후천의 기운이 있느니라. 천지의 마음은 신신영령하고 천지의 기운은 호호창창하여 천지에 가득 차고 우주에 뻗쳐 있느니라.⁸⁷⁾

海月の ‘待人接物’은 모든 만물에는 바로 侍天主 아니함이 없으니 이런 점에서

84) 상계논문자료에서 인용.

85) 東經大全, 論學文, 天道教中央總部. “夫天道者 如無形而有迹 地理者如廣大而有方者也 故天有九星 以應九州 地有八方 以應八卦而 有盈虛迭代之數 無動靜變易之理 陰陽相均 雖百千萬物 化出於其中 獨惟人最靈者也 ”

86) 神師法說, 待人接物, 天道教中央總部. “萬物莫非侍天主 能知此理則 殺生不禁而自禁矣 鷺雀之卵 不破以後 鳳凰來儀草木之苗 不折以後 山林茂盛矣 手折花枝則 未摘其實 遺棄廢物則 不得致富 羽族三千 各有其類 毛蟲三千 各有其命 敬物則德及萬邦矣 ”

87) 神師法說, 靈符呪文, 天道教中央總部. “心者在我之本然天也 天地萬物本來一心 心有先天後天之心 氣亦有先天後天之氣 天地之心神靈靈 天地之氣浩浩蒼蒼 滿乎天地(중(巨)乎宇宙也 ”

만물은 인간과 다를 바 없고 만물을 공경해야 한다는 논리가 나온다. 좀 더 확대 해석한다면 만물에는 한울님이 있으니 만물 속에 있는 이치는 바로 곧 한울님의 이치인 것으로 한울님을 공경해야 한다는 것은 만물속에 있는 한울님의 이치도 공경해야 한다는 것이다.⁸⁸⁾

이러한 宇宙觀은 水雲의 그것과 맥을 같이 하나 사람뿐만 아니라 미물까지도 천이 내재해 있어 이를 공경하라는 더욱 진전된 汎天論的인 입장에 서고 있다.

‘人乃天(사람이 곧 하늘이다)’이라는 東學의 宇宙觀은 宇宙의 중심을 인간에서 찾으려는 인간회복의 정신이며 인간성이 우주의 섭리까지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기본권은 누구도 침범할 수 없다는 人本主義 思想이라 할 수 있다.

2. 人間觀

東學 思想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人間觀으로 東學의 人間觀 속에는 封建主義的, 階級主義的 人間觀과 사회제도를 개혁시킬 수 있다는 혁명적 정신과 힘이 내포되어 있다.

인간과 만물은 한울님의 靈氣인 ‘至氣’에 의하여 造化되었다는 東學의 ‘至氣觀’은 인간을 우주의 중심으로 보는 ‘人乃天’이라는 人間의 尊嚴性和 平等을 강조하는 근대적인 人本主義 思想을 표방하였다.

사람이 바로 한울이요 한울이 바로 사람이니, 사람 밖에 한울이 없고 한울 밖에 사람이 없느니라.

마음은 어느 곳에 있는가 한울에 있고, 한울은 어느 곳에 있는가 마음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마음이 곧 한울이요 한울이 곧 마음이니, 마음 밖에 한울이 없고 한울 밖에 마음이 없느니라. 한울과 마음은 본래 둘이 아닌 것이니 마음과 한울이 서로 화합해야 바로 시·정·지라 이를 수 있으니, 마음과 한울이 서로 어기면 사람이 다 侍天主라고 말할지라도 나는 侍天主라고 이르지 않으리라.⁸⁹⁾

88) 송준석(1985), “東學의 價値觀과 人本主義教育思想에 관한 研究”, 고려대학교대학원, p.27.

89) 神師法說, 天地人·鬼神·陰陽, 天道教中央總部. “人是天天是人 人外無天天外無人 心在何方 在於天 天在何方 在於心故 心即天天即心 心外無天天外無心 天與心本無二物 心天相合 方可謂侍定知 心天相違則 人皆曰侍天主 吾不謂侍天主也 ”

‘人乃天’이나 ‘人是天’이란 개념은 水雲의 ‘侍天主’ 개념에 바탕을 두고 있는데

「시」라는 것은 안에 신령이 있고 밖에 기화가 있어 온 세상 사람이 각각 알아서 옮기지 않는 것이요

「주」라는 것은 존칭해서 부모와 더불어 같이 섬긴다는 것이요.⁹⁰⁾

‘侍天主’란 인간보다 높은 한울님을 인간 속에 모신다는 뜻과 함께 인간과 한울님의 관계는 하나라는 ‘神人合一’, ‘天人合一’思想에 기초를 두고 있다.

그의 侍天主思想은 인간관계에 있어서의 차별은 물론이려니와 神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구별을 배제하려는 일체의 원리에 입각한 人間中心·人間平等思想인 것이다.⁹¹⁾

東學의 人間觀은 侍天主思想에서 보듯이 우리 조상들이 의미했던 인간의 개념과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우리 조상들이 의미했던 ‘人間’의 개념을 인간은 사람만이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그의 세계라고 정의하고 인간을 사람이라고 보았을 때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⁹²⁾

이와 같이 水雲은 天·地·人의 三才 가운데 인간의 차원을 가장 중심적 존재로 파악하였으며 인간은 누구나 한울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인간을 떠난 한울님이란 생각할 수 도 없으며 한울님의 가르침도 밖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서 온다는 것이다.⁹³⁾

음과 양이 서로 교류어 비록 백천만물이 그 속에서 화해 나지마는 오직 사람이 가장 신령한 것이니라.

그러므로 삼재의 이치를 정하고 오행의 수를 내었으니 오행이란 것은 무엇인가. 한울은 오행의 버리가 되고 땅은 오행의 바탕이 되고 사람은 오행의 기운이 되었으니, 천·지·인 삼재의 수를 여기에서 볼 수 있느니라.⁹⁴⁾

90) 東經大全, 論學文, 天道教中央總部. “侍者 內有神靈 外有氣化 一世之人 各知不移者也 主者稱其尊而與父母同事者也”

91) 신성조(2001), “동학의 아동존중교육사상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교육대학원, p.5.

92) 김인회(1980), 한국인의 교육학, 이성사, p.251~252. ; 최무석(1988), “동학의 도덕교육사상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대학원, p.30에서 재인용.

93) 조돈희(1991), “東學思想에 나타난 神과 人間에 관한 研究”, 석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교육대학원, p.43.

여기에서 水雲이 설명하는 ‘侍天主’의 ‘모신다’ 또는 ‘섬긴다’라는 뜻의 ‘侍’라는 개념을 “사람마다 그 속에 한울님을 모시고 있어 小我的 차원이 아니라 大我的 차원에서 모두 하나로 합해짐으로써 참 自我를 발견할 수 있다.”⁹⁵⁾라고 보았으며 또한 “神靈함이란 곧 성실함”⁹⁶⁾, “사람마다 自身の 몸에 모신 靈氣가 어느 누구도 옮기지 못할 至氣로서의 造化性 자체임을 자각하는 것”⁹⁷⁾이라고 설명하였다.

이상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侍’의 개념은 안으로는 성실한 마음을 가지고 밖으로는 모든 사물과의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참된 자아를 깨달으려는 신념과 태도를 말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자각이 바로 ‘人爲而化’이며 그대로 ‘無爲而化’⁹⁸⁾가 되는 것이다.

「東經大全」과 「龍潭遺詞」에 자주 등장하는 ‘天’은 마치 부모와 같이 섬기기 위해 붙이는 것으로 우리말의 ‘님’을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의 ‘天’은 곧 ‘人間 = 天’이라는 등식으로 성립되는데 이것은 인간을 존엄하고 존귀한 宇宙의 중심으로 표현한 東學의 독특한 人間觀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도사 믿지말고 한울님을 믿었어라
네몸에 모셨으니 사근취원(捨近取遠) 하단말가⁹⁹⁾

94) 東經大全, 論學文, 天道教中央總部. “陰陽相均 雖百千萬物 化出於其中 獨惟人最靈者也 故定三才之理 出五行之數 五行者何也 天爲五行之綱 地爲五行之質 人爲五行之氣 天地人三才之數於斯可見矣 ”

95) 이돈화(1963), “신인철학”, 「한국사상총서 I」, 일신사, 76~78.; 신성조(2001), 전계논문 p.5에서 재인용.

96) 최동희(1973), “수운의 인간관”, 「동학사상논총 제1집」, p.252.

97) 조용일(1988), 「東學造化思想연구」, 동성사, p.100.

98) 東經大全, 論學文, 天道教中央總部. “曰吾道無爲而化矣 守其心正其氣 率其性受其教 化出於自然之中也 西人言無次第 書無皂白而 頓無爲天主之端 只視自爲身之謀 身無氣化之神 學無天主之教 有形無迹 如思無呢 道近虛無 學非天主 豈可謂無異者乎 ”

「우리 도는 무위이화라. 그 마음을 지키고 그 기운을 바르게 하고 한울님 성품을 거느리고 한울님의 가르침을 받으면, 자연한 가운데 화해나는 것이요, 서양사람은 말에 차례가 없고 글에 순서가 없으며 도무지 한울님을 위하는 단서가 없고 다만 제 몸만을 위하여 빌 따름이라. 몸에는 기화지신이 없고 학에는 한울님의 가르침이 없으니 형식은 있으나 자취가 없고 생각하는 것 같지만 주문이 없는지라, 도는 허무한데 가깝고 학은 한울님 위하는 것이 아니니, 어찌 다름이 없다고 하겠는가.」


99) 龍潭遺詞, 教訓歌, 天道教中央總部.

‘사람이 한울님을 섬긴다’ 라고 한다면 “한울은 어떤 물리적 대상이 아니라 人格성을 소유하고 있는 존재라고 보아야 한다.”¹⁰⁰⁾ 이에 대하여 東學은 그 실천의 道를 밝히고 있다.

우리 도는 넓고도 간략하니 많은 말을 할 것이 아니라,
별로 다른 도리가 없고 誠·敬·信 석자이니라.¹⁰¹⁾

우리 도는 다만 誠·敬·信 세 글자에 있느니라. 만일 큰 덕이 아니면 실로 實踐하고 행하기 어려운 것이요, 과연 誠·敬·信에 능하면 성인 되기가 손바닥 뒤집기 같으니라.¹⁰²⁾

여기서 ‘誠’의 의미는 우리 민중에 널리 쓰이던 ‘至誠이면 感天이다.’라는 민족적 의식을 상징하듯이 儒學的 성격이 매우 강함을 볼 수 있다. 儒教에 의하면 ‘誠實’은 인간의 마음가짐의 근본이며 동시에 실천덕목으로써¹⁰³⁾ 다시 “誠卽明”¹⁰⁴⁾(참되면 밝다)라고 하였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성은 하늘의 도이고, 이 성을 온전히 하는 것이 사람의 도리이다.¹⁰⁵⁾

이러한 儒學的 의미의 요소는 水雲의 것과 일치하는데 이는 ‘한울님’을 모시는 올바른 태도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밝음이 있는 바를 알지 못하거든 멀리 구하지 말고 나를 닦으라.
정성이 이루어지는 바를 알지 못하거든 내 마음을 잃지 않았나 헤아리라.¹⁰⁶⁾

100) 김순임·정병연·황준연 공저(1990), 「한국윤리思想」, 박영사, p. 282.
101) 東經大全, 座箴, 天道教中央總部. “吾道博而約 不用多言義 別無他道理 誠敬信三字”
102) 神師法說, 誠·敬·信, 天道教中央總部. “吾道只在 誠 敬 信 三字 若非大德 實難踐行 果能誠敬信 入聖如反掌”
103) 민상순(1993), “東學의 神觀에 나타난 教育思想研究”,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대학원, p.41.
104) 中庸, 第十章.
105) 中庸, 第二十章. “誠者天地道也 思誠者人之道也”
106) 東經大全, 前八節, 天道教中央總部. “不知明之所在 遠不求而修我 不知誠之所致 數吾心之不失”

대저 이 도는 마음으로 믿는 것이 정성이 되느니라. 믿을 신자를 풀어 보면 사람의 말이라는 뜻이니 사람의 말 가운데는 옳고 그름이 있는 것을, 그 중에서 옳은 말은 취하고 그른 말은 버리어 거듭 생각하여 마음을 정하라. 한번 작정한 뒤에는 다른 말을 믿지 않는 것이 믿음이니 이와 같이 닦아야 마침내 그 정성을 이루느니라. 정성과 믿음이며, 그 법칙이 멀지 아니하니라. 사람의 말로 이루었으니 먼저 믿고 뒤에 정성하라. 내 지금 밝게 가르치니 어찌 미더운 말이 아니겠는가. 공경하고 정성들여 가르치는 말을 어기지 말지어다.¹⁰⁷⁾

여기서 ‘信’은 따져보고 바로 밝히는 것을 말하며 ‘敬’은 경건한 자세로 信言을 받아들이라는 것이며, ‘誠’은 人言을 이루는 것을 뜻한다. 다시 말하면 信은 도를 바로 알라는 것이며 敬은 바로 알아낸 道를 내 것으로 경건히 받아들이라는 것이며, 誠은 내 것으로 받아들인 道를 실천 사회화시키라는 것이다.¹⁰⁸⁾

이 信·敬·誠은 학습의 기본 자세로 ‘學’이란 바로 알아 내 것으로 받아들이며 실천을 통하여 행동에 옮기는 것으로 볼 수 있다.

‘敬’은 한울님을 「모신다」는 것은 ‘밖에 氣化함이 있다.’(外有氣化)하는 것을 뜻하는데 여기서 氣化란 인간이 다른 모든 사물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



공경이 되는 바를 알지 못하거든 잠깐이라도 모양함을 늦추지 말라.¹⁰⁹⁾

이는 한울님에 대한 慕仰하는 마음을 잠시라도 잊지말고 항상 깨어 있도록 주의하라는 것이다. 따라서 내가 나를 대할 때나 남을 대할 때나 어떤 사물을 대할 때 항상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행동하면 그와 같은 경지에서 「敬人」이 되며 사물과의 관계에서는 「敬物」이 되어서, 결국 「敬天」과 합치되는 경지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다.

사람마다 마음을 공경하면 기혈이 크게 화하고, 사람마다 사람을 공경하면 많은

107) 東經大全, 修德文, 天道教中央總部. “大抵此道 心信爲誠 以信爲幻 人而言之 言之其中 曰可曰否 取可退否 再思心定 定之後言 不信曰信 如斯修之 乃成其誠 誠與信兮 其則不遠 人言以成 先信後誠 吾今明諭 豈非信言 敬以誠之 無違訓辭 ”

108) 신부철(1983), “동학의 윤리관”, 신인간 1월호.; 민상순(1993), 전개논문 p.40에서 재인용.

109) 東經大全, 前八節, 天道教中央總部. “不知敬之所爲 暫不弛於慕仰 ”

사람이 와서 모이고, 사람마다 만물을 공경하면 만상이 거동하여 오니, 거룩하다 공경하고 공경함이여!¹¹⁰⁾

또한 水雲은 ‘侍天主’에 대한 굳건한 마음과 신념이 이룩될 때 ‘誠’과 ‘敬’이 이룩되어진다고 보았는데 이 자각적 신념이 곧 「信」이라 하여 誠과 敬보다 信의 선행을 강조하였다.

사람이 혹 정성은 있으나 믿음이 없고, 믿음은 있으나 정성이 없으니 가히 탄식할 일 이로다. 사람의 닦고 행할 것은 먼저 믿고 그 다음에 정성드리는 것이니, 만약 실지의 믿음이 없으면 헛된 정성을 면치 못하는 것이니라. 마음으로 믿으면 정성 공경은 자연히 그 가운데 있느니라.¹¹¹⁾

‘信’은 곧 ‘믿음’으로 사람의 말의 뜻이라는 뜻인데 삶의 말 가운데는 옳고 그름이 있고 그 중에서 옳은 말을 취하고 그른 말은 버리는데 거듭 생각하여 마음을 정하여 한번 작정한 뒤에는 다른 말을 믿지 않는 것이 믿음으로 이렇게 해야 마침내 정성을 이루게 된다는 것이다.¹¹²⁾

이러한 誠·敬·信은 다시 ‘守心正氣’¹¹³⁾ 라는 단어로 집약되는데 守心正氣란 마음을 바로잡고 몸가짐을 바르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守心正氣의 태도는 “인간의 뜻과 행위가 한울님의 뜻 또는 덕과 합일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德’은 선하다는 뜻과 온전하다는 뜻이 있는데 한울님의 뜻은 선하고 온전하고 우주적으로 큰 것이므로 인간의 작은 뜻이 그것과合一될 때 선이 되고 德이 되는 것이다.”¹¹⁴⁾

110) 神師法說, 誠敬信, 天道教中央總部.“ 人人敬心則氣血泰和 人人敬人則萬民來會 人人敬物則萬相來儀 偉哉敬之敬之也夫 ”

111) 神師法說, 誠敬信, 天道教中央總部. “ 人或有誠而無信 有信而無誠 可嘆矣 人之修行先信後誠 若無實信則 未免虛誠也 心信 誠敬自在其中也 ”

112) 천도교경전(1974), 수덕문 해설, 천도교중앙본부, p.25.

113) 東經大全, 修德文, “ 仁義禮智 先聖之所教 修心正氣 惟我之更定 一番致祭 永侍之重盟 萬惑罷去 守誠之故也 衣冠正齊 君子之行 路食手後 賤夫之事 道家不食 一四足之惡肉 陽身所害 又寒泉之急坐 有夫女之防塞 國大典之所禁 臥高聲之誦呪 我誠道之太慢 然而肆之 是爲之則” - 인의예지는 옛 성인의 가르친 바요, 수심정기는 내가 다시 정한 것이니라. 한번 입도식을 지내는 것은 한울님을 길이 모시겠다는 중한 맹세요, 모든 의심을 꺼쳐버리는 것은 정성을 지키는 까닭이니라. 의관을 바로 갖추는 것은 군자의 행실이요, 길에서 먹으며 뒷짐지는 것은 천한 사람의 버릇이니라. 도가에서 먹지 아니할 것은 한가지 네발짐승의 나쁜 고기요, 몸에 해로운 것은 또한 찬물에 갑자기 앉는 것이니라. 유부녀를 막는 것은 나라 법으로도 금하는 것이요, 누워서 큰 소리로 주문 외우는 것은 나의 정성된 도에 대만함이니라. 그렇듯이 퍼니 이것이 수칙이 되느니라.

「한울님 마음이 곧 사람의 마음이라면 어찌하여 선악이 있습니까.」
대답하기를 「그 사람의 귀천의 다름을 명하고 그 사람의 고락의 이치를 정했으나,
그러나 군자의 덕은 기운이 바르고 마음이 정해져 있으므로 천지와 더불어 그 덕에
합하고 소인의 덕은 기운이 바르지 못하고 마음이 옮기므로 천지와 더불어 그 명에
어기나니, 이것이 성쇠의 이치가 아니겠는가.」¹¹⁵⁾

본래의 참다운 自我를 보존, 실천하는 순간에 나의 德이 한울님의 德과合一되
는 이런 경지를 ‘合氣德’이라 하는데 守心正氣를 통한 合氣德의 사상에는 무한한
창조적 자아의 초월성이 내재되어 있음을 살필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東學의 인간에 대한 善惡觀은 어떠할까? 水雲은 나의 덕이 한울님의
덕과 합일되는 ‘合氣德’에서 선의 도덕 경지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

君子는 天心에 따르므로 선하며 小人은 利己主義의으로 소견이 좁고 편파적이
므로 惡이 된다고 보고 있다. 그리하여 “善惡은 盛衰의 원리에 의하여 盛하는 것
과 衰하는 것은 서로 대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서로 관계를 가지고 교체되어
盛이 衰로 되며 衰가 다시 盛으로 되는데 이 때 衰하는 것은 잠정적으로 나타나
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¹¹⁶⁾ 이는 惡한 것에 대하여 善은 절대적 대립 관계가 아니
라 사회관계가 善으로 나타나는 반대 작용의 일시적 현상일 뿐 君子는 한울님의
뜻에 따르므로 善惡을 구별하지 않는다는 뜻도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
듯 남을 해하고 자신마저 상하게 하는 惡을 행하기보다는 나를 포함해서 다른 사
람에게 이로움을 주는 善을 행함으로써 만인이 君子가 되는 道德的 社會, 人間性
回復의 우월성을 보여주는 人間尊重社會가 바로 東學이 추구한 이상사회였다.

114) 김용준(2002), “東學의 人間觀”, 「東學革命백주년기념논총」, <http://www.chondogyo.or.kr/> 논문자료에서 인용

115) 東經大全, 論學文, 天道教中央總部. “然而君子之德 氣有正而心有定故 與天地合其德 小人之德 氣不正而心有移故 與天地違其命 此非盛衰之理耶 ”

116) 이강일(1992), 전계논문 p.29에서 인용.

IV. 東學의 教育思想

東學이 한국 사상사에 있어 근대적인 인간주의 사상을 표방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것은 새로운 人間觀의 해석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하늘의 경지로 끌어올린 것이었다. 이러한 “인간 이해의 방식은 人間主義의 극치를 나타낸 것으로 전통의 구속과 굴레로부터의 인간해방의 선언이자 인간의식 전환의 확실한 기점을 이룬 것이라 말할 수 있다.”¹¹⁷⁾

새 교육사상을 정립함에 있어 東學과 같은 사유 체계를 수용하는 일은 다른 무엇보다도 인간이 사는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인간의 형성에 있어서는 인간을 궁극적 목적으로 보며,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되는 관점의 확립이 필수적으로 전제되어야 한다.¹¹⁸⁾

교육의 최고 이념은 모든 사람의 인격의 존엄을 인정하고 그것을 최대한 실현시키는 일이다. 학교교육의 철학적 근거 역시 인간존중의 사상을 실현시키는 데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¹¹⁹⁾ 이런 측면에서 東學思想의 본질에서 살펴보았듯이 우주의 본체를 至氣로 인식하여 天과 人間, 모든 만물이 계속하여 생성하고 진화하여 완성(造化)의 길로 나아간다고 보았다. 至氣觀은 儒學의 理氣二元論을 극복하는 개념이며 우주의 궁극적 본질을 創造와 造化의 근원으로 해석하였다는 점과 우주의 중심을 인간으로 보았다는 측면에서 教育思想的 的의를 찾을 수 있다.

東學의 造化 개념은 創造論도 아니며 科學的 進化論도 아닌 至氣에 의한 造化論인데 이것은 一神論的인 創造論과 無爲而化的, 즉 自然的 進化論을 포용, 융화하는 개념¹²⁰⁾이라는 점에서도 그 창조적 가치를 부여할 수 있다.

東學은 온 만물 중에서 인간이 가장 진화된 것으로 인식하여 侍天主하면 人乃

117) 손인수(2002), 「東學의 教育觀」, <http://www.donghakinfo.com> 논문자료에서 인용.

118) 상계논문 참조.

119) 이강일(1992), 전계논문, p.42.

120) 김용준(2002), “東學의 人間觀”, 「東學革命백주년기념논총」, <http://www.chondogyo.or.kr/> 논문자료.

天이 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이는 현대 과학의 진화론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인 동시에 여기서 인간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설명한 인간의 육성을 근본 이념으로 추구했다는 점에서 무궁한 인간관, 자율적 인간관, 창조적 인간관의 교육관을 제시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곧 地上天國을 이루려는 後天開闢 사상으로 이어졌는데 이 개혁은 인간의 精神開闢으로 시작되어 민족의 개혁으로 이어지고 이것이 인류의 同歸一體를 도모하는 社會開闢으로 확산된다고 보았다. 이 人間開闢이란 인간의 존엄성을 극대화하여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행태를 지닌, 各自爲心하지 않는, 同歸一體 할 수 있는 인간, 즉 인간 본연의 길로 갈 수 있는 인간, 인간의 질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人間教育觀이며 教育思想이라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이런 면에서 일반적으로 東學思想은 인간을 궁극적 목적으로 보며, 상실된 자아를 자각하는 인간적 주체성 확립과 輔國安民의 민족적 주체성을 겸비한 인간 육성이라는 그 실천을 최고의 가치로 추구했다는 점에서 교육사상적 의의를 지니고 있다.



1. 人本主義 教育思想

東學은 封建社會의 차별적 人間觀을 부정하고 '사람이 곧 하늘'이라 하여 인간의 존엄성을 하늘과 관련시켜 주장해왔다.

이 같은 人乃天의 倫理는 人本主義的, 즉 인간화의 윤리이며 불평등한 당시의 사회상황을 규명하고 非人間的 요소들을 민중의 편에서 고발한 人間性 回復의 표현이라 할 수 있다.¹²¹⁾ 東學의 人乃天 사상은 인간의 존엄성과 그 평등의 실현을 위한 신념에서 출발한 사상으로 당시의 지도논리가 上意下達이라는 從屬的 맥락 속에서 전개되었던 전례를 벗어나서 민중이 주체자가 되는 인간의 尊嚴性·平等性을 확인했다. 이와 같이 侍天主 함으로써 체득되는 人乃天은 인간존엄성의 극치로부터 나오는 東學의 民主主義的, 人本主義的 教育 價値觀이며 教育思想이라고 할 수 있다.

121) 정미라(1992), "東學에 나타난 教育思想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원광대학교대학원, p.36.

人本主義 敎育이란 “삶의 목적과 敎育의 목적이 다를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삶에 대한 의미를 발견하고 목적을 설정하여 이를 수행할 수 있는 바람직한 인간이 되도록 도와주는 과정이다.”¹²²⁾ 존귀하고 이성적이며 자유롭고 무한한 가능성을 지니 善한 존재라는 인간이해에 근거하여 敎育의 非人間化 현상을 비판하고 개인의 각성과 사회 문화적 제반 조건의 개선을 기하고자 노력하는 것이라고 볼 때 인간형성의 과정에서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하여서는 먼저 自我의 覺醒과 自身이 귀중한 存在임을 알아야 한다는 侍天主·養天主·事人如天·人乃天 사상은 훌륭한 人權思想이자 人本主義 사상이라 할 수 있다.

나는도시 믿지말고 한울님을 믿었어라
네몸에 모셨으니 사근취원(捨近取遠) 하단말가 ¹²³⁾

東學에서의 하느님을 모신다는 뜻은 자기 자신 즉 인간 자신을 모신다는 뜻으로 이것이 곧 ‘侍天主’이며 사람이 곧 하늘이라는 ‘人乃天思想’ 즉 人本的 平等思想으로 발전한 것이다.

東學은 사람을 天(한울님)과 같은 존재로 보기 때문에 그 인성은 性惡이나 性善의 極端的 二分法 構造가 아니다. 즉 다시 말하면 東學의 人性은 善惡의 기준은 절대적으로 불변하거나 절대적이 아닌, 스스로의 노력에 의하여 개선해 나갈 수 있는 가변적이며, 가능성의 자질을 지니고 있다는 인간신뢰를 전제로 하였다는 데¹²⁴⁾ 그 敎育적 가치가 있는 것이다.

「한울님은 선악을 가리지 않기 때문이니라.」

문기를 「해도 없고 덕도 없습니까.」

대답하기를 「요순의 세상에는 백성이 다 요순같이 되었고 이 세상 운수는 세상과 같이 돌아가는지라 해가 되고 덕이 되는 것은 한울님께 있는 것이요 나에게 있지 아니하니라. 날날이 마음속에 헤아려 본즉 해가 그 몸에 미칠지는 자세히 알 수 없으나 이런 사람이 복을 누리리라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듣게 해서 안되니, 그대가 물을 바도 아니요 내가 관여할 바도 아니니라.」¹²⁵⁾

122) 고려대학교 「인간주의 敎育사상」 敎育사·철학연구회(1996), p.24.

123) 龍潭遺詞, 敎訓歌, 天道敎中央總部.

124) 손인수, 「한국사상사 VI」 p.1117 ; 이현동(1993), 전계논문 p.66에서 재인용.

125) 東經大全, 論學文, 天道敎中央總部. “曰反道而歸者何也 曰斯人者不足舉論也 曰胡不舉論

東學은 인간을 우주의 중심으로 보았기 때문에 ‘天=人間’에 대한 언급이 많다. 따라서 東學思想의 중심은 ‘天’ 즉 한울님 사상에 있다고 볼 수 있는데. 天에 대한 敬天思想은 우리 민족 전래의 사상이기도 하지만 東學에 와서 天의 개념이 다른 면에서 인식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면 東學의 ‘天’의 실체는 무엇인가?

대저인간(大抵人間) 초목군생(草木群生) 사생재천(死生在天) 아닐런가
 불시풍우(不時風雨) 원망(怨望)해도 입사호천(臨死號天) 아닐런가
 삼황오제(三皇五帝) 성현(聖賢)들도 경천순천(敬天順天) 아닐런가¹²⁶⁾

여기서 天의 실체는 우주만상의 주체자이며 자연의 이치임을 밝히고 있다..

이 세상에서 귀중한 존재로 그 가치를 인정받는 것은 인간이외에도 학문도 귀중하고 예술도 귀중하며, 시간도 귀중하고, 쌀도 귀중하다. 그밖에도 건강, 우정, 명예, 금전 등 귀중한 것의 종류에는 한이 없다. 그러나 이 여러 가지 것들을 인간과 같은 차원에서 귀중하다고 볼 수는 없다. 그 이유는 학문과 예술은 인간에 의하여 생산되는 동시에 인간에 의하여 그 가치가 결정되며 귀중함을 부여받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우주 만물의 자연의 理致¹²⁷⁾에 따르지 않는 모든 학문과 예술 뿐 아니라 금전, 명예 등은 인간에 의하여 사용되고 가치를 부여받게된다. 따라서 인간들은 그것들이 갖는 가치의 근원이다. 이와 같이 볼 때 인간의 귀중함과 다른 것들의 귀중함 사이에는 차원이 다른 것이다. 그러기에 우리는 ‘人間은 尊嚴하다’는 말을 사용하여 인간의 귀중함과 다른 사물의 귀중함 사이에 구별을 짓는 것이다.

也 曰敬而遠之 曰前何心而後何心 也 曰草上之風也 曰然則 何以降靈也 曰不擇善惡也 曰無害無德耶 曰堯舜之世 民皆爲堯舜 斯世之運 與世同歸 有害有德 在於天主 不在於我也 一一究心則害及其身 未詳知之 然而斯人享福 不可使聞於他人 非君之所問也 非我之所關也 ”

126) 龍潭遺詞, 勸學歌, 天道教中央總部.

127) 神師法說, 以心治心, 天道教中央總部. “ 내 恒常 天語와 人語의 區別을 말하였거니와, 以心治心도 또한 이 理致에서 생긴 것이다. 사람의 마음에 어찌 두 가지 뿌리가 있으리오. 다만 마음은 하나이지마는 그 用에 있어 하나는 以心이 되고 하나는 治心이 되나니, 以心은 天心이요 治心은 人心이니라.譬컨데 同一한 火로되 그 用에 依하여 善惡이 생기고, 同一한 水로되 其用에 依하여 利害가 다름과 같이, 同一한 心이로되 心이 理에 合하여 心和氣和가 되면 天心을 거느리게 되고, 心이 感情에 흐르면 狹隘窘迫하여 모든 惡德이 이로 생기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道 닦는 者 以心으로써 恒常 治心을 抑制하여 御者가 勇馬를 善御함과 같이 그 用에 宜하면, 禍轉하여 福이 되고 災變하여 祥瑞가 될 수 있나니라. ”

내 마음이 곧 네 마음이니라. 사람이 어찌 이를 알리오. 천지는 알아도 귀신은 모르니 귀신이라는 것도 나니라. 너는 무궁 무궁한 도에 이르렀으니 닦고 단련하여 그 글을 지어 사람을 가르치고 그 법을 바르게 하여 덕을 펴면 너로 하여금 장생하여 천하에 빛나게 하리라.¹²⁸⁾

이는 ‘내 마음이 곧 네 마음이다.(吾心即汝心也)’라는 인간의 이성을 중시하고 있으며 그러한 경지를 통해 오직 자기 자신만이 ‘天’이 될 수 있는 것이다.

一. 不知明之所在 遠不求而修我

밝음이 있는 바를 알지 못하거든 멀리 구하지 말고 나를 닦으라.

二. 不知德之所在 料吾身之化生

덕이 있는 바를 알지 못하거든 내 몸의 화해난 것을 헤아리라.

三. 不知命之所在 顧吾心之明明

명이 있는 바를 알지 못하거든 내 마음의 밝고 밝음을 돌아보라.

四. 不知道之所在 度吾信之一如

도가 있는 바를 알지 못하거든 내 믿음이 한결같은가 헤아리라.

五. 不知誠之所致 數吾心之不失

정성이 이루어지는 바를 알지 못하거든 내 마음을 잃지 않았나 헤아리라.

六. 不知敬之所爲 暫不弛於慕仰

공경이 되는 바를 알지 못하거든 잠깐이라도 모양함을 늦추지 말라.

七. 不知畏之所爲 念至公之無私

두려움이 되는 바를 알지 못하거든 지극히 공변되게 하여 사사로움이 없는가 생각하라.

八. 不知心之得失 察用處之公私

마음의 얻고 잃음을 알지 못하거든 마음 쓰는 곳의 공과 사를 살피라.¹²⁹⁾

이러한 측면에서 東學 思想은 지극히 宗教的이기도 하지만 그 기저에는 人間中心 思想이 자리잡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인간이면 누구나 守心正氣와 誠敬信을 통해 君子 즉 무궁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人間尊重, 人間平等의 人本的 平等思想이 내재해 있다. 이러한 人本的 平等思想은 三政의 紊亂과 인륜이 부패하여

128) 東經大全, 論學文, 天道教中央總部. “ 曰吾心即汝心也 人何知之 知天地而無知鬼神 鬼神者吾也 及汝無窮無窮之道 修而煉之 制其文教人 正其法布德則 令汝長生 昭然于天下矣 ”

129) 東經大全, 前八節, 天道教中央總部.

한이 뼈에 사무친 당시의 하층민에게는 천지 개벽과 같은 사상으로 받아들여져
민중 속으로 스며들어갔다.

금세(今世)는 이러하나 자고성현(自古聖賢) 하신말씀
대인(大人)은 여천지합氣德(與天地合其德) 여일월합기명(與日月合其明)
여귀신합기길흉(與鬼神合其吉凶)이라 이같이 밝혀내어
영세무궁(永世無窮) 전(傳)했으니 몰몰(沒沒)한 지각자(知覺者)는
용충망충 하는말이 지금은 노천(老天)이라
영험(靈驗)도사 없거니와 몸쓸사람 부귀(富貴)하고
어진사람 궁박타고 하는말이 이뿐이오
약간(若干)어찌 수신(修身)하면 지별(地閥)보고 가세(家勢)보아
추세(趨勢)해서 하는말이 아무는 지별(地閥)도 좋거니와
문필(文筆)이 유여(裕餘)하니 도덕군자(道德君子) 분명(分明)타고
모몰염치(冒沒廉恥) 추존(推尊)하니 우습다 저사람은
지별(地閥)이 무엇이게 군자(君子)를 비유(比喻)하며
문필(文筆)이 무엇이게 도덕(道德)을 의논(議論)하노.¹³⁰⁾

또한 “門閥觀念을 부정하고 지식이나 문장보다도 도덕이 제일이라는 知行合一
教育원리까지도 내포하고 있는 反階級主義的 平等思想이었던 것이다.”¹³¹⁾

오늘 날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사회에 있어서 ‘인간의 존엄성’은 지상의 명제인
동시에 과제인 것이다. 그러나 인간은 존엄하다’는 명제가 우리에게 당위로써 요청
하는 바와 현실 사이에는 엄청난 괴리가 실재하고 있음을 본다.¹³²⁾ 즉 人間不在,
人間疎外의 가장 근본적 문제의 해결은 실천 윤리로서의 人間教育의 回復이며 强
化라고 할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인간의 존엄성을 강조한 東學이 제시하고 있
는 실천윤리를 살펴보겠다.

부모님께 효를 극진히 하오며, 남편을 극진히 공경하오며, 내자식과 며느리를 극진히
사랑하오며, 하인을 내 자식과 같이 여기며, 육축(六畜)이라도 다 아끼며, 나무라도 생
순을 꺾지 말며, 부모님 분노하시거든 성품을 거슬리지 말며 웃고, 어린 자식 치지 말
고 울리지 마옵소서. 어린아이도 한울님을 모셨으니 아이 치는 것이 곧 한울님을 치는
것이오니, 천리를 모르고 일행 아이를 치면 그 아이가 곧 죽을 것이니 부디 집안에 큰

130) 龍潭遺詞, 道德歌, 天道教中央總部.

131) 남궁용권(1983), 전계논문p.184.

132) 이현동(1993), 전계논문 p.69.

소리를 내지 말고 화순하기만 힘쓰옵소서. 이같이 한울님을 공경하고 효성하면 한울님이 좋아하시고 복을 주시나니, 부디 한울님을 극진히 공경하옵소서.¹³³⁾

1. 毋欺天하라 한울님을 속이지 말라.
2. 毋慢天하라 한울님을 거만하게 대하지 말라.
3. 毋傷天하라 한울님을 상하게 하지 말라.
4. 毋亂天하라 한울님을 어지럽게 하지 말라.
5. 毋夭天하라 한울님을 일찍 죽게 하지 말라.
6. 毋汚天하라 한울님을 더럽히지 말라.
7. 毋餒天하라 한울님을 주리게 하지 말라.
8. 毋壞天하라 한울님을 허물어지게 하지 말라.
9. 毋厭天하라 한울님을 싫어하게 하지 말라.
10. 毋屈天하라 한울님을 굴하게 하지 말라.¹³⁴⁾

1. 明倫理하라 윤리를 밝히라.
2. 守信義하라 신의를 지키라.
3. 勤業務하라 업무에 부지런하라.
4. 臨事至公하라 일에 임하여 지극히 공정하라.
5. 貧窮相恤하라 빈궁한 사람을 서로 생각하라.
6. 男女嚴別하라 남녀를 엄하게 분별하라.
7. 重禮法하라 예법을 중히 여기라.
8. 正淵源하라 연원을 바르게 하라.
9. 講眞理하라 진리를 익히고 연구하라.
10. 禁滯雜하라 어지럽고 복잡한 것을 금하라.¹³⁵⁾

여기에서 ‘天’을 ‘人’으로 대치하여 적용하면 이것은 인간의 존엄을 극대화하는 동시에 나와 남을 존엄하게 하는 인간소외와 인간 부재를 극복할 수 있는 인간성 회복의 윤리가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東學은 인간의 존엄성을 바탕으로 두고 인간의 생활 자체를 궁극적 목적으로 삼은 人本的·平等主義 教育思想이며 人間疎外, 人間不在의 해결 방안으로써 教育思想的 意義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교육사상적 의의에도 불구하고 東學의 지도층은 토속적인 기층문화를 바탕으로 하여 살아온 하층 민중을 지도하는데 이질적인 요소가 있었다. 그 중에서도 가문으로 계승된 유교적 전통은 그 대표적인 것으로¹³⁶⁾ 득도이전의 水雲

133) 神師法說, 內修道文, 天道教中央總部.

134) 神師法說, 十毋天, 天道教中央總部.

135) 神師法說, 臨事實踐十個條, 天道教中央總部.

의 심정은 민중적이었다기 보다는 儒敎主義的 立身揚名¹³⁷⁾을 위한 염원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함을 볼 수 있다. 보다 중요한 문제는 “형식적인 신분조건에 구애됨이 없이 東學에 숨쉬고 있는 反封建 反外勢의 흐름이 민중을 민족주체역량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識者層 지도자를 외면하였다”¹³⁸⁾는 점이다. 「三不入」 즉 班不入, 富不入, 士不入¹³⁹⁾으로 그 대상이 제한되어 있듯이 東學은 선구적 지식인의 참여에 대하여 소극적이며, 부정적인 입장을 취해왔으며 그것은 어느 의미에서 東學을 왜소화시킨 하나의 요인이기도 하며 이는 밖으로 反外勢, 反西의인 요인이 함께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東學의 교육사상적인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점은 인간이 사는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를 인간을 중심으로 하여 보았으며 인간의 형성에 있어서 인간을 궁극적 목적, 최고의

136) 장대희(1983), 전계논문 p.151.

137) 龍潭遺詞, 龍潭歌, 天道敎中央總部.

“ 기장(奇壯)하다 기장하다 구미산기(龜尾山氣) 기장하다
 거룩한 가암최씨(佳岩崔氏) 북덕산 아닐런가
 구미산 생긴후에 우리선조(先祖) 나셨구나
 산음(山蔭)인가 수음(水蔭)인가 위국충신(爲國忠臣) 기장하다
 가련(可憐)하다 가련하다 우리부친(父親) 가련하다
 구미용담(龜尾龍潭) 좋은승지(勝地) 도덕문장(道德文章) 닦아내어
 산음수음(山蔭水蔭) 알지마는 입신양명(立身揚名) 못하시고
 구미산하(龜尾山下) 일정각(一亭閣)을 용담이라 이름하고
 산림처사(山林處士) 일포의(一布衣)로 후세(後世)에 전(傳)탄말가
 가련(可憐)하다 가련하다 이내가운(家運) 가련하다
 나도또한 출세후(出世後)로 득죄부모(得罪父母) 아닐런가
 불효불효(不孝不孝) 못면(免)하니 적세원울(積世怨鬱) 아닐런가
 불우시지(不遇時之) 남아(男兒)로서 허송세월(虛送歲月) 하였구나
 인간만사(人間萬事) 행(行)하다가 거연사십(遽然四十) 되었더라
 사십평생(四十平生) 이뿐인가 무가내(無可奈)라 할길없다
 구미용담 찾아오니 흐르나니 물소리요
 높으나니 산(山)이로세 좌우산천(左右山川) 둘러보니
 산수(山水)는 의구(依舊)하고 초목(草木)은 함정(含情)하니
 불효(不孝)한 이내마음 그아니 슬플소냐
 오작(烏鵲)은 날아들어 조롱(嘲弄)을 하는듯고
 송백(松栢)은 울울(鬱鬱)하여 청절(淸節)을 지켜내니
 불효한 이내마음 비감회심(悲感悔心) 절로난다
 가련하다 이내부친(父親) 여경(餘慶)인들 없을소냐“

138) 장대희(1983), 전계논문 p.154.

139) 이돈화(1979), “천도교창건사”, 「東學思想자료집Ⅱ」, p.70.

가치라고 생각하는 관점의 확립을 필수적으로 전제하였기 때문인 것이다. 東學의 師弟觀을 살펴보면 삶의 동반자로서의 민중지도자의 역할을 분명히 하여 민중의 내재적 가능성을 함께 키워 나가는 삶의 동반자로서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데 있다.

사람이 바로 한울이니 사람 섬기기를 한울같이 하라. 내 제군들을 보니 스스로 잘난체 하는 자가 많으니 한심한 일이요, 도에서 이탈되는 사람도 이래서 생기니 슬픈일이로다. 나도 또한 이런 마음이 있느니라. 이런 마음이 생기면 생길 수 있으나, 이런 마음을 감히 내지 않는 것은 한울님을 내 마음에 양하지 못할까 두려워 함이로다.¹⁴⁰⁾

누가 나에게 어른이 아니며 누가 나에게 스승이 아니리오. 나는 비록 부인과 어린아이의 말이라도 배울만한 것은 배우고 스승으로 모실만한 것은 스승으로 모시노라.¹⁴¹⁾

사람이 반드시 서로 사랑해야 큰 도를 반드시 얻으리니, 항상 생각하고 생각하라. 내가 못 사람을 사랑하면 못 사람이 한울 길에 가서 영의 다리를 반드시 이룰 것이요, 못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가 한울 길에 가서 영의 다리를 반드시 이룰 것이니, 돌보고 돌보아 서로 사랑하면 반드시 성과를 얻을 수 있느니라. 성·심·신 삼단으로 서로 돕고 서로 사랑하면 대도의 큰 근본이 되느니라.¹⁴²⁾

교육의 본질적인 측면에서 학교는 학생을 본질적인 교육적 주체로 인식하고 그들의 인간적인 가능성을 人本的 平等主義에 입각한 동반자의 입장에서 함께 성장 발달 시켜야 한다

즉 東學의 교육사상은 형식적, 권위적인 지도자에 의한 기존 질서를 타파하고 역사와 사회의 주체로서 민중의 자각적 의식을 형성하려 했던 것이다 이런 인간화 교육사상적 기저에는 ‘養天主’사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인간을 삶의 주체적 존재로 파악하고 그들이 지닌 의 내재적 가능성의 「키움」을 사상의 기저로 삼아 민중의 자각화를 이루고자 한 점에서 東學의 教育思想的 의의를 찾을 수 있다.

140) 神師法說, 待人接物, 天道教中央總部. “ 人是天 事人如天 吾見諸君 自尊者多矣 可嘆也 離道者自此而生 可痛也 吾亦有此心 生則生也 不敢生此心也 天主不養吾心也-恐也 ”

141) 神師法說, 待人接物, 天道教中央總部. “ 孰非我長 孰非我師 吾雖婦人小兒之言 可學而可師也. ”

142) 聖師法說, 神通考, 天道教中央總部. “ 人必相愛 大道必得 念念思之 我愛衆生 衆去天路 靈橋必成 衆生愛我 我去天路 靈橋必成 眷眷相愛 必有得果 性心身三端 相助相愛 大道大宗 ”

2. 道德主義 教育思想

人本的 平等主義는 人間尊嚴, 人間回復의 사상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人間화를 포함하고 있다. 東學의 人本的 平等主義가 人間존재에 대한 근본적 가치와 인격에 대한 답이라고 할 때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논의는 교육사상적 측면에서 의의가 있는 것이다.

東學이 민중의 편에서 평등한 인간성에 대한 자각을 통해 인간의 존엄성을 인식시킨 것은 교육의 일차적인 목적은 人格教育, 人間性回復에 있다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다.¹⁴³⁾

道德性回復이란, 생명가치에 대한 인식의 회복이며 人間 생명에 대한 경외감이 자리할 때 가능할 것이다.

모든 교육은 人間 상호간의 상호존중, 신뢰를 통할 때 교육적 의미는 극대화되어지는 것이나 현대교육의 단순히 지식을 전수 받는 관계의 유지는 人間관계의 측면에서 많은 반성이 요청된다.

道德이란 사람으로서 행해야 할 규범을 깨우치고 행함으로써 先天的 人間性의 回復과 後天的 人格이 형성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後天的 人格의 형성은 수도를 통한 인격의 도야를 통해서 가능해질 것이다.

우리가 東學의 道德 教育思想에 관심을 갖는 것은 부패한 사회 현실을 고발하고 그 재건을 갈망하는 啓蒙主義的 요소와 가르치는 것보다는 자율적 인격 함양에 비중을 두고있다는 점에서 교육적 가치를 들 수 있다.

남의사장(師丈) 되는법(法)은 내자불거(來者不拒) 아닐런가
가르치기 위주(爲主)하니 그밖에 무엇이며
남의제자(弟子) 되는법은 백년결의(百年結義) 하온후에
공경(恭敬)히 받은문자(文字) 호말(豪末)인들 변(變)할소나
출등(出等)한 제군자(諸君子)는 비비유지(比比有之) 한다해도
작지사(作之師) 작지제(作之弟)라 사문성덕(斯門盛德) 아닐런가

143) 송준석(1985), “東學의 가치관과 人本主義 教育思想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대학원, p.34.

자고성현(自古聖賢) 문도(門徒)들은 백가시서(百家詩書) 외워내어
 연원도통(淵源道統) 지켜내서 공부자(孔夫子) 어진도덕(道德)
 가장더욱 밝혀내어 천추(千秋)에 전(傳)해오니
 그아니 기쁠소나 내역시(亦是) 이세상에
 무극대도(無極大道) 닦아내어 오는사람 효유(曉諭)해서
 삼칠자(三七字) 전(傳)해주니 無爲而化(無爲而化) 아닐런가
 우매(愚昧)한 세상사람 자존지심(自尊之心) 다던지고
 자지지벽(自是之癖) 무삼일고 사문(師門)에 없는법(法)을
 혼자앉아 지어내니 천추(千秋)에 없는법(法)을
 어디가서 본(本)을보며 입도(入道)한 사오삭(四五朔)에
 어찌그리 속성(速成)인고¹⁴⁴⁾

東學은 地上天國을 이루는 출발을 인간의 개혁으로 인식하고 있는데 이는 守心正氣를 통해서 비롯되는 것으로 보았다.

인의예지는 옛 성인의 가르친 바요, 守心正氣는 내가 다시 정한 것이니라.¹⁴⁵⁾

이러한 守心正氣는 곧 誠·敬·信을 말하며 인의예지의 가르침에 비해서 誠·敬·信의 가르침은 외형적보다 내실적이며 보수적 보다 운동적이요. 변증적보다 종교적이어서 天人合一의 원리에 철저히하여 인간의 마음을 지키고 우주의 기운을 바르게 하는 革命的 人間改造思想이다. 天地開闢은 어떤 조물주에 의한 창조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守心正氣에 의한 誠·敬·信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여기에 인간중심의 宇宙觀이 이루어진다.¹⁴⁶⁾

144) 龍潭遺詞, 道修詞, 天道教中央總部.

145) 東經大全, 布德文, 天道教中央總部. “ 仁義禮智 先聖之所教 修心正氣 惟我之更定 一番 致祭 永侍之重盟 萬惑罷去 守誠之故也 衣冠正齊 君子之行 路食手後 賤夫之事 道家不食 一四足之惡肉 陽身所害 又寒泉之急坐 有夫女之防塞 國大典之所禁 臥高聲之誦呪 我誠道之太慢 然而肆之 是爲之則 ”

- 인의예지는 옛 성인의 가르친 바요, 수심정기는 내가 다시 정한 것이니라. 한번 입도식을 지내는 것은 한울님을 길이 모시겠다는 중한 맹세요, 모든 의심을 깨쳐버리는 것은 정성을 지키는 까닭이니라. 의관을 바로 갖추는 것은 군자의 행실이요, 길에서 먹으며 뒷짐지는 것은 천한 사람의 버릇이니라. 도가에서 먹지 아니할 것은 한가지 네발짐승의 나쁜 고기요, 몸에 해로운 것은 또한 찬물에 갑자기 앉는 것이니라. 유부녀를 막는 것은 나라 법으로도 금하는 것이요, 누워서 큰 소리로 주문 외우는 것은 나의 정성된 도에 태만함이니라. 그렇듯이 펴니 이것이 수칙이 되느니라.

146) 이항녕, 「東學의 宇宙觀」, p.20.; 이현동(1993), 전계논문 p.91에서 재인용.

여기서 우리는 守心正氣를 통해 인격을 도야 할 수 있다는 東學의 이상적 도덕 규범은 東學만의 독창적인 이상적 규범이었느냐? 하는 의문과 함께 요구되는 도덕 규범은 어떠한 것인가? 하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이에 水雲은 선천의 도덕과 관련하여 도덕에 대한 뜻이 공자의 그것과 같다고 함을 볼 수 있다.

어질다 모든벗은 우매(愚昧)한 이내사람
 잊지말고 생각하소 성경현전(聖經賢傳) 살폈으니
 연원도통(淵源道統) 알지마는 사장사장(師丈師丈) 서로전(傳)해
 받는것이 연원(淵源)이오 그중(中)에 가장높아
 신통육예(身通六藝) 도통(道通)일세 공부자(孔夫子) 어진도덕(道德)
 일관(一貫)으로 이름해도 삼천제자(三千弟子) 그가운데
 신통육예(身通六藝) 몇몇인고 칠십이인(七十二人) 도통(道通)해서
 전천추(前千秋) 후천추(後千秋)에 일관(一貫)으로 전(傳)차해도
 일천년(一千年) 못지나서 전자방(田子方) 단간목(段干木)이
 난법난도(亂法亂道) 하였으니 그아니 슬플소나
 어질다 이내벗은 자고급급(自古及今) 본(本)을받아
 순리순수(順理順受) 하였어라.¹⁴⁷⁾

사람은 공자가 아니로되 뜻은 같고, 글은 만권이 아니로되 뜻은 능히 크도다.¹⁴⁸⁾

그러면 그 德은 무엇인가?에 대하여도 水雲은 孔子의 道를 깨닫고 보니 자신의 道와 대동소이함을 다음의 글에서 밝히고 있다.

애달다 저사람은 명명(明明)한 이운수(運數)는
 다같이 밝지마는 어떤사람 군자(君子)되고
 어떤사람 지러한고 인의예지신(仁義禮智信)인줄을
 망창(茫蒼)한 저소견(所見)에 무엇을 알잔말고
 역력(歷歷)히 기록(記錄)해서 거울같이 전(傳)해주니
 자세(仔細)보고 안심(安心)해서 불사(不似)한 그른거동(舉動)
 남의이목(耳目) 살펴내어 정심수신(正心修身) 하온후에
 남과같이 수도(修道)하소 대저세상(大抵世上) 인도중(人道中)에

147) 龍潭遺詞, 道修詞, 天道教中央總部.

148) 東經大全, 和訣詩, 天道教中央總部.

믿을신(信)자 주장(主張)일세 대장부(大丈夫) 의기범절(義氣汎節)
 신(信)없으면 어디나며 삼강오륜(三綱五倫) 밝은법(法)은
 예(禮)없으면 어디나며 대장부(大丈夫) 지혜범절(智慧汎節)
 염치중(廉恥中)에 있었으니 우습다 저사람은
 자포자기(自暴自棄) 모르고서 모물염치(冒沒廉恥) 장난하니
 이는역시 난도자(亂道者)요 사장(師丈)못한 차례도법(次第道法)
 제훈자 알았으니 이는역시 난법자(亂法者)라
 난법난도(亂法亂道) 하는사람 날볼낮이 무엇인고
 이같이 아니말면 제신수(身數) 가련(可憐)하고
 이내도(道) 더럽히니 주소간(晝宵間) 하는걱정
 이밖에 다시없다 작심(作心)으로 불변(不變)하면
 내성군자(乃成君子) 아닐런가 귀귀자자(句句字字) 살펴내어
 정심수도(正心修道) 하여두면 춘삼월(春三月) 호시절(好時節)에
 또다시 만나볼까.¹⁴⁹⁾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先天과 後天의 이상적 도덕 규범은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다. 水雲은 東學에서 孔子의 道를 대체로 긍정하면서도 자기의 道와 다른 점을 아래와 같이 밝히고 있다.



공부자의 도를 깨달으면 한 이치로 된 것이요, 오직 우리도로 말하면 대체는 같으나 약간 다른 것이니라. 의심을 버리면 사리의 떳떳한 것이요, 예와 지금을 살펴보면 인사의 할 바니라.¹⁵⁰⁾

우리 도는 넓고도 간략하니 많은 말을 할 것이 아니라,
 별로 다른 도리가 없고 誠·敬·信 석자이니라.¹⁵¹⁾

東學에서 말하는 守心正氣는 유교의 守心正氣와는 달리 이를 신령한 마음으로 지키고, 모든 대상에 대한 행위인 氣를 올바르게 한다는데 있다.

이러한 誠·敬·信은 水雲이 강조한 守心正氣로 환원되는데 「守心」은 「誠」과 같은 것으로 성실한 마음가짐을 뜻하며, 「正氣」는 성실한 마음을 실천에 옮겨서 환경에 적용하는 태도를 뜻한다.¹⁵²⁾

149) 龍潭遺詞, 道修詞, 天道教中央總部.

150) 東經大全, 修德文, 天道教中央總部. “覺來夫子之道則 一理之所定也 論其惟我之道則 大同而小異也 去其疑訝則 事理之常然 察其古今則 人事之所爲 ”

151) 東經大全, 座箴, 天道教中央總部. “吾道博而約 不用多言義 別無他道理 誠敬信三字 ”

152) 신부철(1982), “동학의 윤리관”,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교육대학원, p. 45.

水雲은 선천의 도덕과 관련하여 ‘孔자의 어진 道徳’¹⁵³⁾이라고 하였으며 ‘사람은 공자가 아니로되 뜻은 한가지’¹⁵⁴⁾라고 하여 공자의 뜻과 같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곧 유교의 형식주의적 도덕성을 그대로 계승한 것이라는 점이다.

이는 이상적 도덕 규범을 誠·敬·信 삼자로 東學의 실천적 도덕 규범을 밝혀 냈지만 도덕의 규범 자체를 규격화하는데 매달림으로써 민중들의 의식화와 의식 성장을 기하는 데 요구되는 이상적 도덕 규범의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였다는 한계를 지녔다고 할 수 있다.

십년(十年)을 공부(工夫)해서 道成入德(道成立德) 되게되면
속성(速成)이라 하지마는 무극(無極)한 이내도(道)는
삼년불성(三年不成) 되게되면 그아니 헛말인가
급급(急急)한 제군(諸君)들은 인사(人事)는 아니랴고
천명(天命)을 바라오니 졸부귀(猝富貴) 불상(不祥)이라
만고유전(萬古遺傳) 아닐런가 수인사(修人事) 대천명(待天命)은
자세(仔細)히도 알지마는 어찌그리 급급(急急)한고¹⁵⁵⁾

또한 자기의 도는 ‘삼년불성(三年不成) 되게되면 그아니 헛말인가’하여 삼년이 道成入德(道成立德)할 수 있다는 종교적, 신비적 권위에 의거하여 도덕을 주입하고자 한 점은 도덕 규범의 본래의 기능인 자연과 인간 혹은 인간과 인간간의 질서를 유지하는데 요구되는 일정한 ‘態도의 調節’으로써의 규범의 의미를 망각하였

153) 龍潭遺詞, 道修詞, 天道教中央總部.

“ 어질다 모든벗은 우매(愚昧)한 이내사람
잊지말고 생각하소 성경현전(聖經賢傳) 살폈으니
연원도통(淵源道統) 알지마는 사장사장(師丈師丈) 서로전(傳)해
받는것이 연원(淵源)이오 그중(中)에 가장높아
신통육예(身通六藝) 도통(道通)일세 공부자(孔夫子) 어진도덕(道徳)
일관(一貫)으로 이름해도 삼천제자(三千弟子) 그가운데
신통육예(身通六藝) 몇몇인고 칠십이인(七十二人) 도통(道通)해서
전천추(前千秋) 후천추(後千秋)에 일관(一貫)으로 전(傳)차해도
일천년(一千年) 못지나서 전자방(田子方) 단간목(段干木)이
난법난도(亂法亂道) 하였으니 그아니 슬플소나
어질다 이내벗은 자고급급(自古及今) 본(本)을받아
순리순수(順理順受) 하였어라 ”

154) 東經大全, 和訣詩, 天道教中央總部. “人無孔子意如同 書非萬卷志能大 (사람은 공자가 아니로되 뜻은 같고, 글은 만권이 아니로되 뜻은 능히 크도다.)”

155) 龍潭遺詞, 道修詞, 天道教中央總部.

다는 지적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내재적 한계 속에서도 敎育思想的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점은 당시의 차별적 신분질서와 儒敎의 절대적 규범을 통해 인간을 억압하는 비인간화 현상 초월하여 밑으로부터의 인간성의 회복을 통한 도덕적 판단 능력의 신장과 도덕적 안목을 갖고 실천 할 수 있게 하는 방향으로 나가려는 도덕적 규범을 제시하고자한 점은 선구자적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다.

道德的 實踐을 강조한 東學의 도덕 교육 내용은 한마디로 실천을 통한 自律의 人格形成 즉 도덕적 자세를 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자세를 유지할 때 그 결과로 道成立德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았는데 “道成立德에는 두 가지 단서 在誠在人이라는 단서가 붙는다.”¹⁵⁶⁾ 정성과 사람의 두 가지 즉 도와 덕을 성립 시키는 것을 뜻한다.

이내좁은 소견(所見)으로 교법교도(敎法敎道) 하다가서
불과일년(不過一年) 지낸후에 망창(茫蒼)한 이내걸음
불일발정(不日發程) 하자하니 각처(各處)의 모든벗은
편언척자(片言隻字) 바이없고 세세사정(細瑣事情) 못미치니
양협(量陝)한 이내소견(所見) 수천리(數千里) 밖에앉아
이제야 깨닫고서 말을하며 글을지어
천리고향(千里故鄉) 전(傳)해주니 어질고 어진벗은
매물한 이내사람 부디부디 갈지말고
성경이자(誠敬二字) 지켜내어 차차차차 닦아내면
무극대도(無極大道) 아닐런가 시호시호(時乎時乎) 그때오면
도성입덕(道成立德) 아닐런가

결국 守心과 正氣는 어느 하나 상대적 우위를 가질 수 없는 상호보완적이면서 도 합일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보이며 또한 이것을 誠實·恭敬·信義라고 할 때 일상생활에서 강조하는 도덕적 실천 덕목이 되는 것이다.

이상에서 보듯이 東學은 당시의 민중들에게 도덕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새로운 규범을 제시하거나 선천의 성현들이 밝혀놓은 도덕 규범을 신비적 권위에 의하여 주입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민중들로 하여금 그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실천할

156) 조윤하(1993), “水雲 최제우의 사상속에 나타난 道德敎育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대학원, p.49.

수 있는 道德性을 回復시키고자 하였음을 볼 수 있다.¹⁵⁷⁾

오늘날 道德教育이 도덕적 안목과 도덕적 판단능력의 신장을 통해서 접근하며 실천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東學이 자율적 실천과 도야를 통하여 인격을 형성시키려고 목적하였던 점은 教育思想的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할 것이다.

3. 民族主義 教育思想

民族이란 지연, 혈연과 같은 자연적 요소를 공동으로 하는 자연공동체이고, 이를 토대로 하여 나머지 다른 객관적 요소, 즉 문화적 요소를 함께 하는 문화공동체로서 그 성원들이 공동의 의식과 의욕을 갖게되는 공동체로 파악된다.¹⁵⁸⁾

모든 인간은 민족 혹은 민족국가의 틀 안에서 생활하며 인간 자신의 욕구와 본질을 추구하게 된다.

따라서 民族主義의 개념을 규정하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민족주의는 시대에 따라 지역에 따라 항상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며 정치적 이데올로기와 복합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더욱이 민족주의는 현대까지도 완결되지 않고 발전 진행상태에 있기에 규정상의 어려움은 배가된다.

민족 국가적 삶은 인간의 본래적 존재 방식이며 동시에 모든 인간의 저마다 삶의 터전이며 자아실현의 통로이다. 그러므로 외부로부터의 제약을 받지 않은 자주 독립적 민족국가의 존재는 인간 삶의 본질적 욕구를 채우기 위한 필수적 조건이다. 그런 면에서 민족국가의 자주독립을 수호하고, 유지하며 강화하려는 민족적 의지¹⁵⁹⁾는 민족주의의 필수 요소가 될 것이다.

民族主義의 개념에 대하여 많은 학설¹⁶⁰⁾이 있으나 본 논문에서는 東學 사상 속

157) 정대성(1999), 전계논문 p.30.

158) 임종국(1991), “동학혁명의 민족주의적 성격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대학원, p. 6.

159) 한동운(1994), “東學思想의 이데올로기적 분석”, 석사학위 논문, 한국교원대학교대학원, p. 65에서 재인용.

160) 민족주의를 보는 견해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된다.

① 심리적인 견해 : 민족주의를 어떤 국가나 민족에의 소속의식, 충성심, 민족적 감정,

에 내포되어 있는 교육사상을 고찰하기 위하여 민족주의를 민족의 자주성을 의식하고 국가를 통하여 생명과 이상을 실현하려는 측면에서 고찰할 것이다.

東學의 民族主義는 위기의식이 고조되던 당시의 시대적 제반 압력으로부터 기인한다. 내부적 사회모순 즉 봉건적 신분지배에 기인한 정치, 경제적 불평등과 외부적 위기의식 즉 서양세력 및 일본의 주권 유린에 대한 民族主義意識의 발현인 것이다.¹⁶¹⁾

따라서 東學의 民族主義는 크게 反外勢·反封建의 두 줄기를 형성하면서 성장한 민족 구원의 종교였으며 사상의 인식체계라고 할 수 있다.

근대 민족주의의 과제를 반외세·반봉건이라고 하였을 때 衛正斥邪論¹⁶²⁾은 반봉건을 등한시한 채 반외세에만 치중한 불완전한 민족주의였다면 東學은 반봉건과 반외세라는 근대 민족주의 과제를 모두 의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衛正斥邪論이나 반봉건에 치중하여 반외세에 소홀한 開化思想보다는 좀더 완전한 민족주의였다고 할 수 있다.¹⁶³⁾

東學의 民族主義의 요소는 民主主義와 병존하는 경향이 강하다. 즉 “개인의 자유의식이 있어야 민족주의가 성숙되는 것이다. 개인이 전체에 매몰되어 있으면 개인적인 자각이나 단체적인 자각도 없고 민족주의도 발생하지 않는다.”¹⁶⁴⁾

여기서 개인의 자유의식이라는 것은 主人意識이요, 국가 전체로 볼 때 민족이 주체적으로 영위될 때 쓰이는 民族 主體性과 일맥 상통하게 되는 것이다.

또는 특정 지역 속에서의 언어, 전통, 역사,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보여주는 정신적이고도 감정적이며 의식적인 상태로 보는 견해로 대표적인 학자는 J.Coleman, F.Hertz, 진덕규 등이 속한다.

② 이론, 사상 등으로 파악하는 견해 : 민족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한 민족이 그 발전을 위하여 정치적 자유를 획득하려는 힘이라는 주장으로 손문, 국어국문학회 등이 속한다.

③ 사상과 운동으로 파악하는 견해 : 민족주의란 민족적 통합을 위한 하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민족의식을 가지고 대외적 독립, 대내적 통일과 발전을 지향하는 이데올로기 및 정치적 운동이라고 보는 견해로 K.R.Minogue, 김두현, 최문환, 최상용등이 속한다.

161) 상계논문 p.67.

162) 조선 말기에 유학자들이 개화에 반대하면서 정학(正學)과 정도를 지키고 사학(邪學)과 이단을 물리치자는 뜻으로 성리학이외의 모든 종교와 사상을 배격하는 것 임. 처음에는 조선왕조의 폭정 밑에서 정신적으로 의지할 곳이 없는 민중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서학(천주교)에 입도하여 정신적 구제와 안정을 추구하려는 서학(천주교)이 배척 대상이었으나 후에는 외국과의 통상 반대운동으로 전개되었다.

163) 강돈구(1992), 「한국 근대종교와 민족주의」, 집문당, p.121.

164) 최문환(1962), 「민족주의 전개과정」, 박영사, p.58.

민족주체성은 독립이요, 해방이요, 부림을 당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체성의 형성 과정은 의존에서 독립, 노예에서 주인으로, 예속에서 해방으로, 강요당함이 아니고 자유로운 선택으로 넘어가는 과정이다.¹⁶⁵⁾

이런 의미에서 東學은 조선 말의 민족적 위기 속에서 이에 대응하여 민족에 대한 주체적 자각으로 輔國安民과 廣濟蒼生을 기본 목표로 하는 사상체계를 형성하였다. 이러한 東學의 대응은 조선사회의 운과 세계사적인 변화의 운에 대해 매우 독창적이며 주체적인 아래로부터의 창조적 대응이었으며 道成立德, 輔國安民, 布德天下하여 지상천국을 건설을 목표로 우리 민족에게 현실의 과제를 해결하고 희망과 이상을 고취한 민족운동이라는 점에서 교육사상적 의의를 찾을 수 있는 것이다. 水雲은 이러한 위기의식과 관련하여 東學의 포교의 시작을 알리고 있다.

애석하도다. 지금 세상사람은 시운을 알지 못하여 나의 이 말을 들으면 들어가는 마음으로 그르게 여기고 나와서는 모여서 수군거리며 도덕을 순종치 아니하니 심히 두려운 일이다. 어진 사람도 이를 듣고 그것이 혹 그렇지 않다고 여기니 내 못내 개탄하거니와 세상은 어찌 할 수 없는지라, 간략하나마 적어내어 가르쳐 보이니 공경히 이 글을 받아 삼가 교훈의 말씀으로 삼을지이다.¹⁶⁶⁾

우선 東學이란 말 자체가 서학에 대립되는 민족주의 개념에서 출발한 것이기에 민족주의 전개과정도 종교의 자유에서부터 시작하여 경제적 수탈, 신분계급 타파 등 자유와 평등의 개념으로 이어져 反日, 反外勢의 주권수호로 나아가는 유형을 보였다.

우리나라는 악질이 세상에 가득 차서 백성들이 언제나 편안할 때가 없으니 이 또한 상해의 운수요, 서양은 싸우면 이기고 치면 빼앗아 이루지 못하는 일이 없으니 천하가 다 멸망하면 또한 순망지탄이 없지 않을 것이다.

보국 안민의 계책이 장차 어디서 나올 것인가.¹⁶⁷⁾

165) 이동식(1978), 「한국인의 주체성 확립과 주체성의 본질」, 고려대학교 행동과학연구소, p.175.; 이현동(1993), 전개논문 p.57에서 재인용.


166) 東經大全, 布德文, 天道教中央總部. “惜哉 於今世人 未知時運 聞我斯言則 入則心非 出則巷議 不順道德 甚可畏也 賢者聞之 其或不然而 吾將慨歎 世則無奈 忘略記出 諭以示之 敬受此書 欽哉訓辭 ”

167) 東經大全, 布德文, 天道教中央總部. “是故 我國惡疾滿世 民無四時之安 是亦傷害之數也 西洋戰勝功取 無事不成而 天下盡滅 亦不無辱亡之歎 輔國安民 計將安出 ”

시운(時運)을 의논(議論)해도 일성일쇠(一盛一衰) 아닐런가
 쇠운(衰運)이 지극(至極)하면 성운(盛運)이 오지마는
 현숙(賢淑)한 모든군자(君子) 동귀일체(同歸一體) 하였던가
 어렵도다 어렵도다 만나기도 어렵도다
 방방곡곡(方方谷谷) 찾아들어 만나기만 만날진댄
 흉중(胸中)에 품은회포(懷抱) 다른할말 바이없고
 수문수답(隨問隨答) 하온후에 당당정리(堂堂正理) 밝혀내어
 일세상(一世上) 저인물(人物)이 도탄중(塗炭中) 아닐런가
 함지사지(陷之死地) 출생(出生)들아 보국안민(輔國安民) 어찌할꼬¹⁶⁸⁾

東學의 輔國安民이란 외세의 도진으로부터 나라를 지켜려는 강렬한 민족주의인 ‘輔國’이었으며, 인간을 至高至貴한 존재로 정립한 강렬한 휴머니즘, 평민과 천민들에게 인간은 완전 평등한 존재라는 강렬한 평등사상을 일깨워 국내적 모순에 창조적으로 대응한 ‘安民’이라 할 수 있다.

또한 東學은 반외세의 침략을 경계하며 나라를 앞날을 걱정하는 輔國安民의 대책이 東學에 있음을 다음의 글에서 밝히고 있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UNIVERSITY LIBRARY

대저인간(大抵人間) 초목군생(草木群生) 사생제천(死生在天) 아닐런가
 불시풍우(不時風雨) 원망(怨望)해도 임사호천(臨死號天) 아닐런가
 삼황오제(三皇五帝) 성현(聖賢)들도 경천순천(敬天順天) 아닐런가
 효박(滄薄)한 이세상에 불고천명(不顧天命) 하단말가
 장평갱졸(長平坑卒) 많은사람 한울님을 우러러서
 造化중(造化中)에 생겼으니 은덕(恩德)은 고사(姑捨)하고
 근본(根本)조차 잊을소나 가련(可憐)한 세상사람
 각자위심(各自爲心) 하단말가 경천순천(敬天順天) 하였어라
 효박(滄薄)한 이세상에 불망기본(不忘其本) 하였어라.¹⁶⁹⁾

이는 인간에게 各自爲心 하지말고 侍天主하면서 근본을 잊지 말라는 輔國安民의 가르침이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東學의 가르침은 革命的 後天開闢 사상과 그 맥을 같이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168) 龍潭遺詞, 勸學歌, 天道教中央總部.

169) 龍潭遺詞, 勸學歌, 天道教中央總部.

천운(天運)이 돌렸으니
근심말고 돌아가서 윤회시운(輪廻時運) 구경하소
십이제국(十二諸國) 괴질운수(怪疾運數) 다시개벽(開闢) 아닐런가
태평성세(太平聖世) 다시정(定)해 국태민안(國泰民安) 할것이니
개탄지심(慨歎之心) 두지말고 차차차차 지냈어라¹⁷⁰⁾

水雲은 당시의 사회적 부패상인 개인의 정신적 결함과 사회적 부패는 各自爲心の 이기심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이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각자의 이기적 자아를 초월하여 자기의 마음속에 누구나 가지고 있는 한울(我)에 따라서 행동해야 한다고 믿었다.¹⁷¹⁾

차차차차 증험(證驗)하니 윤회시운(輪廻時運) 분명(分明)하다
어화세상 사람들아 이내경계(警戒) 하는말씀
세세명찰(細細明察) 하온후에 잊지말고 지켜내어
성지우성(誠之又誠) 공경(恭敬)해서 한울님만 생각하소¹⁷²⁾

그야말로 東學은 개인적 구원에 머물지 않고 민족의식을 위한 구심점으로서, 국가와 민족의 구원을 강조하는 높은 식견¹⁷³⁾을 제시한 사상이라 할 수 있다.

또한 東學은 西勢를 衛正斥邪論과 같이 무조건 경멸하지 않고 도리어 ‘道成入德하여 無事不成하고 전투에서도 그 앞에 맞설 사람이 없을 만큼 막강하고 두려운 세력으로 보았다. 이것은 東學의 西勢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객관적이고 현실주의적 관찰에 의거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¹⁷⁴⁾

경신년 사월에 천하가 분란하고 민심이 효박하여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할 즈음에 또한 괴상하고 어긋나는 말이 있어 세간에 떠들썩하되,
「서양사람은 道成入德하여 그 造化에 미치어 일을 이루지 못함이 없고 무기로 침공함에 당할 사람이 없다하니 중국이 소멸하면 어찌 가히 순망의 환이 없겠는가.」

170) 龍潭遺詞, 夢中老少問答歌, 天道教中央總部.

171) 임종국(1991), 전개논문 p.25.

172) 龍潭遺詞, 勸學歌, 天道教中央總部.

173) 이현희(1986), 「東學革命과 민중」, 대광서림, p.218.

174) 김점권, 전개논문, p.34.

「도무지 다른 연고가 아니라, 이 사람들은 도를 서도라 하고 학을 천주학이라 하고 교는 성교라 하니, 이것이 천시를 알고 천명을 받은 것이 아니겠는가.」¹⁷⁵⁾

이는 東學은 서학에 대해서도 보편주의적이고 객관적 관점에서 동양문명과 서양문명을 대등한 것으로 보는 합리적 사고를 나타낸 시각으로 올바른 민족주의 사상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東學이 민족주의적 색채를 가지게 된 데에는 淸國에 있어서의 서세의 횡포, 조선에 있어서의 일련의 對西粉爭, 淸의 지나친 종주국 태도, 對日反感 등을 중요한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으며¹⁷⁶⁾ 민족보호적이고 항쟁적인 성격이 짙게 포함되어 있다고 하였다.¹⁷⁷⁾

이런 면에서 東學의 輔國安民 사상은 우리나라에 있어 근대적 민족주의 의식의 선구적인 자각과 동시에 강렬한 애국지정에서 나온 반 침략의식이었으며 인간을 지고지귀한 존재로 보고 사람들은 모두 똑같이 한울님을 모시고 있다는 ‘侍天主’사상에 입각한 民族主義와 民主主義가 함께 숨쉬고 있는 사상인 것이다. 포괄적인 의미로서 근대 민족주의의 사상은 민주화사상과 근대화 사상을 포용한다고 보았을 때 東學의 민족주의 사상도 근대 민족주의 사상과 분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東學의 민족주의 사상 안에 용해되어 있는 것이다.¹⁷⁸⁾

가련(可憐)하다 가련하다 아국운수(我國運數) 가련하다
전세임진(前世壬辰) 몇해런고 이백사십 아닐런가
십이제국(十二諸國) 괴질운수(怪疾運數) 다시개벽(開闢) 아닐런가
요순성세(堯舜聖世) 다시와서 국태민안(國泰民安) 되지마는
기험(崎險)하다 기험하다 아국운수(我國運數) 기험하다
개같은 왜적(倭賊)놈아 너희신명 돌아보라
너희역시 하륙(下陸)해서 무슨은덕(恩德) 있었던고

175) 東經大全, 論學文, 天道教中央總部. “夫庚申之年 建巳之月 天下紛亂 民心淆薄 莫知所向之地 又有怪違之說 崩騰又世間 西洋之人 道成立德 及其造化 無事不成 攻闢干戈 無人在前 中國蕩滅 豈可無辱亡之患耶 都緣無他 斯人 道稱西道 學稱天主 教則聖教 此非知天時而 受天命耶”

176) 신복룡(1985), 「동학사상과 갑오농민 혁명」, 평민사, p. 254.

177) 상계서, p.261.

178) 신용하(1987), 「한국민족주의의 형성과 전개」, 서울대출판부, pp.25~26.; 정재훈(1992), “근대 한국민족주의의 이데올로기 성격”, 석사학위 논문, 경북대학교대학원, p.47에서 재인용.

전세임진(前世壬辰) 그때라도 오성한음(熬城漢陰) 없었으면
 옥새보전(玉璽保全) 뉘가할꼬 아국명현(我國名賢) 다시없다
 나도또한 한울님께 옥새보전 봉명(奉命)하네...(중략)
 개같은 왜적놈이 전세임진 왔다가서
 술잔일 못했다고 쇠술로 안먹는줄
 세상사람 뉘가알꼬 그역시(亦是) 원수(怨讐)로다...(중략)179)

위의 글에 의하면 東學은 反外勢, 反侵略의 의지가 잘 나타나 있다. 이러한 東學의 평가는 東學이 외세의 위협 속에서 민족을 수호하려는 보국의식을 고취시킨 점, 보국의 과제를 전 민중에게 봉건적 신분 질서를 타파하고 同歸一體할 것을 요구한 점, 개벽 후 我國運數를 먼저 한다고 말한 점으로 볼 때 어느 정도 타당한 것이었다. 그러나 민중에게 민족주체성을 자각시키고 역사의 주체로 나서도록 한 사실을 갖고 “東學의 민족주의적 성격을 反 中華的인 것으로 단정짓기에는 엄밀한 검토”180)가 요구된다 할 것이다.

東學은 일본이 壬辰倭亂때 침략하여 뜻을 이루지 못하자 다시 침략할 야욕을 가지고 마수를 뻗쳐 온다는 것을 경고하고 경계를 게을리 하지 말 것을 민중들에게 당부한 것은 당시 일본의 침략 작태에 대한 反日 감정의 토로이며 강렬한 애국지정에서 나온 것이다. 그러나 일본에 대한 반침략 의지를 불태우면서도 일면 중화문명에 대하여서도 反 中華的 입장에 있었던가 하는 한계를 들 수 있다.

유도불도(儒道佛道) 누천년(累千年)에 운(運)이역시(亦是) 다했던가
 운회(輪廻)같이 돌린운수(運數) 내가어찌 받았으며
 억조창생(億兆蒼生) 많은사람 내가어찌 높았으며
 일세상(世上) 없는사람 내가어찌 있었던고181)

한무제(漢武帝) 승로반(承露盤)도 웃음바탕 되었더라
 좋을시고 좋을시고 이내신명(身命) 좋을시고
 영세무궁(永世無窮) 하단말가 좋을시고 좋을시고
 금(金)을준들 바꿀소냐 은(銀)을준들 바꿀소냐
 진시황(秦始皇) 한무제(漢武帝)가 무엇없어 죽었는고

179) 龍潭遺詞, 安心歌, 天道教中央總部.

180) 정대성(1999). 진계논문 p.32.

181) 龍潭遺詞, 教訓歌, 天道教中央總部.

내가그때 낳았더면 불사약(不死藥)을 손에들고
 조롱만상(嘲弄萬狀) 하올것을 늦게나니 한이로다
 좋을시고 좋을시고 이내신명(身命) 좋을시고¹⁸²⁾

東學은 전통적으로 인정되어 온 중국의 ‘天下意識’ 즉 天下로 표현되던 ‘十二諸國’(예의 문화권)의 멸망을 예언하면서 천명이 중국에서 물러난 이상 천자에 의존을 그만두고 갈아드는 새 천명은 우리가 먼저 받아 輔國安民의 계책을 세우자고 하였다. 그래서 민중으로 하여금 脫 中華主義的인 개별적 민족국가에의 자각을 일깨워 民族自主思想을 갖게 하였다고 하였다.¹⁸³⁾

개같은 왜적놈을 한울님께 조화(造化)받아
 일야(一夜)에 멸(滅)하고서 진지무궁(傳之無窮) 하여놓고
 대보단(大報壇)에 맹세(盟誓)하고 한(汗)의원수(怨讐) 갚아보세
 중수(重修)한 한(汗)의비각(碑閣) 헐고나니 초개(草芥)같고
 붓고나니 박산(撲散)일세 이런걱정 모르고서
 요악(妖惡)한 세상사람 늘로대해 이말하노
 우리선조(先祖) 험천(險川)땅에 공덕비(功德碑)를 높이세워
 만고유전(萬古遺傳) 하여보세 ¹⁸⁴⁾

그러나 “대보단(大報壇)에 맹세(盟誓)하고 한(汗)의원수(怨讐) 갚아보세”에서 ‘大報壇’¹⁸⁵⁾의 용도와 ‘汗’의 어원에서 오는 한계를 살필 수 있다.

강홍철은 龍潭遺詞의 ‘汗의원수’를 ‘漢夷怨讐’로 해석하여 水雲은 중화사상으로부터 탈피 내지 중국을 저항 대상으로 인식하였다고 하였다.¹⁸⁶⁾ 물론 龍潭遺詞가 순한글 가사이기 때문에 ‘한’의 ‘漢夷’인지는 분명치 않으며, 또한 문맥상의 앞의 ‘한’과 뒤에 나오는 ‘한’이 같은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그러나 문장의 문맥

182) 龍潭遺詞, 安心歌, 天道教中央總部.

183) 안정복(1987), “동학의 사회개혁사상과 영향”, 교문사, pp.567~568.; 정대성(1999), 전개 논문p.36에서 재인용.

184) 龍潭遺詞, 安心歌, 天道教中央總部.

185) 이흥직(1968), “대보단”, 「국사대사전」, 지문각, p.390.

- 조선시대에 임진왜란 때 원군을 보낸 명나라 毅宗명의 은의를 기념하기위하여 세운 사당으로 명나라 太祖, 神宗, 毅宗을 제사하던 사상. 1704년(숙종30) 12월 창덕궁 禁苑 옆에 설치하였다.

186) 강홍철(1988), “최수운 사상의 교육적 가치관”, 「현대와 종교11집」, 현대종교문화연구소, p.36.

을 보면 둘은 다르게 사용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앞의 것은 ‘漢’이며 뒤의 것은 ‘汗’이어야 한다.¹⁸⁷⁾ 그래야 ‘대보단’에서 한(명나라)의 원수를 갚고자 맹세하고 병자호란 때 청나라가 三田渡에 세운 전승기념비를 허무니 초개와 같다는 말이 성립 될 수 있다. 여기서 우리는 東學의 崇明意識을 볼 수 있으며 이것이 과연 東學思想이 완전한 주체적 민족주의 사상이었느냐 하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게된다.

또한 당시의 抵抗民族主義가 모든 관심을 대외적인 민족국가로서의 구국운동과 국권회복 운동에 치우친 한계로 민의를 수렴할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현실에서 행해졌던 抵抗民族主義는 이데올로기의 미성숙과 함께 민주주의를 발전, 추진시킬 담당세력이 되지 못하였다는데서 민주적 국가수립의 기회를 상실하고 말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볼 때 東學의 저항민족주의가 주체적이었으며 민주주의적이었느냐? 하는 점에 이의가 있을 수 있겠으나 교육사상적으로 의의를 살필 수 있는 점은 외세에 대한 침략주의적 태도를 단호히 배격하면서도 중국과 서양 학문의 우수성을 인정하였고 만민이 상호 공존, 상호공생하자는 만민 호혜 평등의 원칙에 있다는 점이다. 또한 민족의 생존을 위해 輔國安民의 기치 아래 사람이 곧 하늘이라는 ‘人乃天’의 인본적 평등주의 사상에 입각한 東學의 사상적 인식은 오늘날 국제사회 속에서 우리가 생존하고 번영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민족적 주체성을 잃지 않고 선진국의 우수한 학문적 성과를 인정하고 그것을 우리의 현실적 토양 위에서 주체적으로 수용하는 자세와 각국의 침략주의적 태도에 대해서는 분연히 전 국민이 맞설 수 있는 의지와 실력이 필요함을 역설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主體的인 自我의 확립과 동시에 民族的 大我의 주체성의 확립도 요구되며 교육은 이러한 요구를 분명히 수용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東學思想의 민족 주체성 교육에 대한 본래의 의미는 개인적 평등 못지 않게 민족적 평등에 입각하여 개방적인 민족주체성 교육을 교육의 중요한 목적으로 삼았다는 데 교육사상적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東學의 민족주의 사상은 인본주의적 사상을 밑바탕에 두고 민족 주체적인 자아의 확립과 민족적 평등에 입각한 개방적인 민족주체성의

187) 정대성(1999), 전계논문, pp.36~37.

확립을 동시에 수용한 사상이었다는 점에서 교육사상적 가치를 찾을 수 있다.

4. 東學 教育思想의 現代의 意味

앞의 교육사상적 고찰을 통하여 東學의 教育思想은 우리의 민족 정서와도 부합되며 민중의식을 계발하고 민중의 생활 상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려는 人本主義, 道德主義, 民族主義의인 근대적 사상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東學의 교육사상을 제시할 수 있었던 점은 “教育觀은 때로는 실천적 경험에 의하여, 때로는 종교적 신앙에 의하여, 때로는 일상적 신념에 의하여, 그리고 때로는 학문적 이론에 의하여 형성 될 수도 있다.”¹⁸⁸⁾ 는 근거에 의하여 가능하였다. 이러한 교육관은 일상인의 소박한 신념에 의하여 형성되기도 하지만 宇宙觀, 人間觀, 社會觀등의 가치관에 의하여 형성되기도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東學의 교육사상을 제시하기 위하여 東學 교육사상의 기초가 되는 우주관과 인간관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人本主義, 道德主義, 民族主義 교육사상을 고찰하였다.

教育觀이란 개인이 교육이라는 현상에 대하여 주관적으로 인식하고 판단하며 평가하는 견해로써 여기에는 가치에 대한 기준과 현실에 대한 인식 및 행위선택의 요소가 포함된다.¹⁸⁹⁾ 따라서 사람에 따라 교육을 보는 관점과 가치는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즉 교육관은 상황이나 인식과 경험 등의 다양한 관점에서 교육적 해석과 관점이 존재하고 있으나 교육에 대한 관점이 엄밀한 의미에서의 교육관이 되려면 가치 지향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인간의 삶을 질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의도적인 작용으로 바람직한 성과를 도출할 수 있을 때 교육적인 의미가 있을 것이다.

東學 교육사상을 고찰을 통하여 현대 교육적 의미를 제시하고자 하는 이유는 교육의 관심은 인간이고 교육의 성과 역시 인간에게 나타나는 성과를 말한다. 그런데 교육은 인간과 가장 밀접해야 할 일 임에도 불구하고 중핵이어야 할 인간에로의 관심은 희미해지고 망각되며 도리어 주변적이고 이차적인 것에 관심이 있

188) 이돈희(1992), 「교육철학개론」, 교육과학사, p.15~16.

189) 배천웅, 최상근, 박종인, 「한국인의 교육관 분석」, p.19.; 이현동(1993), 전계논문 p.53에서 재인용.

다.¹⁹⁰⁾ 는 지적과 교육적 영위에서 정신적으로 부흥하고 재창조해야 할 제일의 사업이 바로 教育價値觀의 확립이라고 볼 때 i)東學의 人乃天을 통한 사람됨의 길은 그 값진 유산의 광맥이기 때문이며,¹⁹¹⁾ ii)東學의 道德主義 教育思想이 인간회복을 통한 도덕적 판단 능력의 신장과 도덕적 안목을 갖고 실천하게 하는 방향으로 도덕적 규범을 제시한 점, iii)統一을 지향하는 韓國民族主義의 현실에서 東學의 民族主義 教育思想이 현재와 미래의 교육에 도움을 주거나 시사할 수 있는 바탕이 되리라는 관점에서 필요한 것이라 하겠다.

이러한 필요성에 의해 東學 教育思想의 現代 教育的意味를 제시하면

첫째, 東學의 人本主義 教育思想은 현대 사회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人間疏外, 人間不在의 해결 방안으로서의 현대 교육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교육은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활동이다. 그러므로 인간에 대한 이해의 방식이 차이는 인간을 대하는 방식의 차이를 낳는다. ‘인간은 ~ 존재이다.’라는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는 일체의 모든 진술들은 사람들이 갖는 인간 이해에 대한 ‘인식의 틀’과 ‘태도’를 보여주기 때문이다.¹⁹²⁾ 東學의 人乃天 사상은 인간의 존엄성과 그 평등의 실현을 위한 신념에서 출발한 사상으로 민중이 주체가 되는 만인의 평등과 인간의 존엄성, 평등성을 확인했다. 이와 같이 ‘侍天主’ 함으로써 체득되는 ‘人乃天’은 인간존엄성의 극치로부터 나오는 교육가치관이며 교육사상이라고 할 수 있다. 현대의 인간화 교육의 목적이 인간의 삶에 대한 의미를 발견하고 목적을 설정하여 이를 수행할 수 있는 바람직한 인간이 되도록 도와주는 과정이라고 볼 때 인간형성의 과정에서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는 먼저 자아의 각성과 자신이 귀중한 존재임을 알아야한다는 侍天主, 養天主, 事人如天, 人乃天 사상은 훌륭한 人權思想이자 현대 人間教育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현대 인간교육이 지향해야 할 점은 인간 존엄성을 바탕으로 하여 인성은 불변하거나 절대적이 아니므로 스스로의 노력에 의하여 개선해낼 갈 수 있다는 가변성과 가능성의 자질을 지니고 있다는 인간 신뢰를 전제로 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인간 내면에 무궁한 造化力이 있다는 것에 대한 자각과 거기에서 나오는

190) 정범모, 「교육과 교육학」, p.17.; 이현동(1993), 상계논문 p.56에서 재인용.

191) 손인수(1989), “東學의 교육사상”, 「한국교육사상사IV」, 문음사, p.1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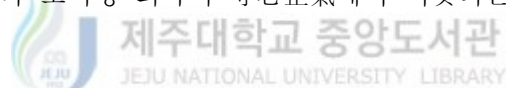
192) 정대성(1999), 전계논문 p.22.

‘무궁한 나’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함으로써 인간성을 회복하고 타인에 대해서도 존중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현대 人間教育은 인간을 궁극적 목적으로 보고 인간의 가치를 존중하는 교육에 힘써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인간적 가치가 인간교육의 본질적 핵심이며 교육이념 체계의 정상이라는 확고한 신념과 교육이념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東學의 道德主義 教育思想은 인간회복을 통한 도덕적 판단 능력의 신장과 도덕적 안목을 갖고 실천하게 하는 自律的 人格 涵養에 비중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현대 교육적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모든 교육은 인간 상호간의 상호존중과 인간 신뢰를 전제할 때 교육적 의미는 극대화되어지는 것이나 현대교육의 단순히 지식을 전수 받는 관계의 유지는 인간 관계의 측면에서 많은 반성이 요구된다. 도덕이란 사람으로서 행해야 할 규범을 깨우치고 행함으로써 선천적 인간성의 회복과 후천적 인격이 형성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東學은 地上天國을 이루는 출발을 인간의 開闢을 통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데 이는 인간의 도덕성 회복이 守心正氣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보고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가 東學의 道德 教育思想에 대하여 현대교육적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점은 부패한 사회 현실을 고발하고 그 재건을 희망하는 啓蒙主義的 요소와 가르치는 것보다는 자율적 인격함양에 두었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오늘날 정신문화보다 빠른 속도로 발달하는 물질문명 속에서 인간의 정신이 물질만능주의에 예속되어 인간이 천시되는 非倫理的인 현실에 처해있다. 인간천시 그 자체가 非道德的이라 할 때 東學의 도덕주의 교육사상이 자율적 실천과 도야를 통하여 인격을 형성시키려고 목적하였던 점은 현대적으로 다음과 같은 교육적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i)自我覺醒을 중시하는 자율적 도덕적 인격 형성을 돕는다는 점이다. ii)東學의 도덕주의 교육사상은 守心正氣(誠·敬·信)에서 보듯이 도덕적 실천에서 행동과 동기를 모두 중시했다는 점이다. iii)東學의 도덕주의 교육사상은 개인의 가치를 최대한 존중하여 自律的 實踐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현대 道德教育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할 것이다.

오늘날의 학교 교육은 지적으로는 옳고 그름을 알게 하는데는 이바지하였으나 옳은 일을 실천 할 수 있는 용기와 옳지 못한 일을 범하지 않을 수 있는 자기통

제력을 길러주지 못하였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¹⁹³⁾ 이러한 면은 현대 도덕교육이 도덕교육성과를 평가하는 방법과 기준이 형식에 얽매어 지적인 측면에만 치중하고 정의적, 행동적 평가는 소홀히 하거나 관심을 갖지 못하였다는데서 기인한다. 따라서 오늘날 道德教育의 방향은 도덕적 안목과 도덕적 판단 능력의 신장을 통해서 인간답게 살기 위한 기본적인 생활 습관과 태도, 예절 등의 도덕적 규범과 행동을 알고 자율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東學의 民族主義 教育思想은 우리 민족 주체성 확립과 統一理念으로서의 현대 교육적 의미를 찾을 수 있다.

東學의 민족주의는 크게 反外勢, 反封建의 두 줄기를 형성하면서 성장한 민족 구원의 종교였으며 사상의 인식 체계라고 할 수 있다.

민족 국가적 삶은 인간의 본래적 존재 방식이며 동시에 모든 인간의 저마다 삶의 터전이며 자아실현의 통로이다. 그러므로 외부로부터의 제약을 받지 않은 자주 독립적 민족국가의 존재는 인간 삶의 본질적 욕구를 채우기 위한 필수적 조건이다. 그런 면에서 민족국가의 자주독립을 수호하고, 유지하며 강화하려는 민족적 의지는 민족주의의 필수 요소가 될 것이다. 東學 思想의 民族主義的 요소는 民主主義와 병존하는 경향이 강하다. 즉 개인의 자유의식이 있어야 민족주의가 성숙되는 것이다. 여기서 개인의 자유의식이라는 것은 주인의식이요, 국가 전체로 볼 때 민족이 주체적으로 영위될 때 쓰이는 민족 주체성과 일맥 상통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東學은 조선 말의 민족적 위기 속에서 이에 대응한 민족에 대한 주체적 자각으로 輔國安民과 廣濟蒼生을 기본 목표로 하는 사상체계를 형성하였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러한 東學의 대응은 조선사회의 운과 세계사적인 변화의 운에 대해 매우 독창적이며 주체적인 아래로부터의 창조적 대응이었으며 道成立德, 輔國安民, 布德天下하여 지상천국을 건설을 목표로 우리 민족에게 현실의 과제를 해결하고 희망과 이상을 고취한 민족운동이라는 점에서 현대 교육적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東學思想은 개인적 구원에 머물지 않고 민족 의식을 위한 구심점으로서, 국가와 민족의 구원을 강조하는 높은 식견을 제시한 사상이라 할 수 있으며 동양문명과 서양문명을 대등한 것으로 보는 합리적 사고

193) 조운하(1993), 전계논문 p.9.

를 나타낸 시각으로 올바른 민족주의 사상이었다는 점에서 국제화를 지향하는 오늘날 민족주의 교육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우리 민족의 뼈아픈 현실인 남북분단은 그 원인이 이데올로기를 배경으로 하여 민족의 이질화를 더욱 깊게 하였고 민족통일이라는 말은 단지 정치적 용어에 한정하여 사용될 뿐 그 내용에 있어서는 아무런 진전과 해결의 구심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 민족의 과제인 민족의 생존과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主體的인 自我의 확립과 동시에 大我的 主體性的 확립도 요구되며 교육은 이러한 요구를 분명히 수용해야 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東學의 ‘同歸一體’ 사상은 지기의 무한한 자연 순환 에너지인 氣化를 통하여 결국은 대립갈등을 자연적으로 해소하여 돌아와 하나가 된다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開關思想은 과거의 모든 모순과 폐습을 타파하여 새 세상이 된다는 뜻으로¹⁹⁴⁾ 그것은 이 시대에도 그대로 적용되어 민족분단의 모순과 불합리를 극복하는 이상적 통일국가의 실현을 위한 통일이념으로서 시대를 넘어 현대적으로 재해석되어질 수 있는 것이며 民族統一의 정신적 지표로서의 현대 교육적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통일은 우리 민족이 주체가 되는 自主的 統一이어야 하며, 통일의 과정은 무력 대결이 아닌 平和的 統一이어야 한다.

자주적이고 주체적인 민족주의를 지향한 東學의 民族主義 教育思想을 토대로 우리 민족주의 교육이 지향해야 할 방향은 i) 무분별한 서구 풍조의 무조건적인 수용이 아닌 합리적으로 수용하여 우리의 것으로 재창조하는 민족주의 교육의 전개가 요구된다. ii) 남북분단 상황을 극복하고 대승적 융화로 나아갈 수 있는 民族統一理念을 수립해야 한다. iii) 통일은 우리 민족 당사자가 해결해야 할 사안이면서 국제적 성격을 띤 문제이기 때문에 통일교육은 미국 등 주변국의 배타적 의식의 고취보다는 지지와 협조를 유지할 수 있는 자세의 육성이 필요하다. iv) 민족적 통일은 단순한 折衷形 統一이 아닌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인류보편적 이념인 자유와 평등, 인권, 자유민주주의에 바탕을 둔 통일 국가를 건설해야 한다. v) 民族主義教育은 민족적 긍지에 기반을 두고 가치관을 형성하는 교

194) 한동운(1994), 전제논문 p.74.

육이어야 한다.

이상과 같은 민족주의 교육이 수행되어 민족성원의 내재적 에너지가 응집될 때 한국 민족주의의 최대과제인 民族統合도 성취될 수 있을 것이다.



V. 要約 및 結論

東學은 19세기 조선사회의 대내외적 위기상황과 정치, 도덕, 사회의 부패로 절망한 민중들에게 새시대적 희망을 심어줄 수 있는 민중 자각의 표현이었으며 人乃天을 바탕으로 한 인권존중과 人本的 平等主義, 主體的 民族主義 사상이라는 점에서 오늘날 사는 한국인에게 교훈적이며 철학적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교육은 문화적 사회적 기능의 작용이라는 관점에서 이해할 때 교육 현상은 바로 사회 문화적 현상이라는 광의의 관점과 교육적 문제들은 우리의 문화적 전통과 분리되어서는 바르게 인식될 수 없다는 입장의 두 가지 측면을 동시에 수용하여 東學思想 고찰을 통하여 東學 사상 속에 깃들여 있는 教育思想을 재조명하고 교육적 의의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東學을 한 사상의 주체로 보았으며 東學이라는 사상 구조가 어떠한 사고 변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전개되어 왔는가 하는 점에 유의하여 살펴보았다. 이는 東學을 종교적 관점에서 보려는 것과도 다르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개별적 특정 사실에 중점을 두려는 입장과는 다른 점을 밝혔다.

東學을 고찰한 결과 東學의 기본사상은 人間의 尊嚴性, 民族主體性이라고 압축하여 볼 수 있으며, 기본 성격은 민중의 안으로부터의 각성과 밖으로의 반항 즉 宗教的 요소와 現實的 요소를 함께 지니면서도 궁극적으로는 그들의 자아에 대한 인간적인 自覺運動으로 이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면에서 일반적으로 동학사상은 인간을 궁극적 목적으로 보며, 상실된 자아를 자각하는 인간의 존엄성 확립과 輔國安民의 민족적 주체성을 겸비한 인간 육성이라는 그 실천을 최고의 가치로 추구했다는 점에서 교육사상적 의의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東學 사상의 구조 속에서 교육적 의의를 제시할 수 있었던 점은

i) 東學은 온 만물 중에서 인간이 가장 진화된 것으로 인식하여 侍天主하면 人乃天이 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이는 현대 과학의 진화론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

인 동시에 여기서 인간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설명한 인간의 육성을 근본 이념으로 하여 無窮한 人間觀, 自律的 人間觀. 創造的 人間觀의 교육관을 제시하였다는 점, ii)도덕적 안목과 신장을 위한 실천적 도덕 규범을 제시한 점, iii)형식적, 권위적인 지도자에 의한 기존 질서를 타파하고 역사와 사회의 주체로서 민중의 자각적 의식을 형성하려 했던 것이다 이런 인간화 교육 사상적 기저에는 ‘養天主’ 사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인간을 삶의 주체적 존재로 파악하고 그들이 지닌 의 내재적 가능성의 「키움」을 사상의 기저로 삼아 민중의 자각화를 이루고자 한 점 iv)東學思想의 민족 주체성 교육에 대한 본래의 의미가 개인적 평등 못지 않게 민족적 평등에 입각한 개방적인 민족주체성 교육을 중요한 목적으로 삼았다는 데 교육적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東學思想의 고찰을 통하여 나타난 東學의 교육사상과 현대 교육적 의미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人本主義 教育思想이다. 東學은 봉건사회의 차별적 인간관을 부정하고 ‘사람이 곧 하늘이다’ 하여 인간의 존엄성을 하늘과 관련하여 주장하여왔다.

이 같은 ‘人乃天’ 사상은 인간화의 윤리이며 비인간적 요소들을 민중의 편에서 고발한 인간성회복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으며 ‘侍天主’ 함으로써 체득되는 ‘人乃天’은 인본주의적 교육 가치관이자 교육사상이라고 할 수 있으며 현대 사회의 가장 근본적 문제인 인간소외, 인간부채의 해결 방안으로서 현대 교육적 의미를 지닌다.

둘째, 道德主義 教育思想이다. 모든 교육은 인간 상호간의 상호존중, 신뢰를 통할 때 교육적 의미는 극대화되어지는 것이나, 현대교육의 단순히 지식을 전수 받는 관계의 유지는 인간관계의 측면에서 많은 반성이 요청된다.

道德이란 사람으로서 행해야 할 규범을 깨우치고 행함으로써 선천적 인간성의 회복과 후천적 인격이 형성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후천적 인격의 형성은 수도를 통한 인격의 도야를 통해서 가능해질 것이다.

우리가 東學의 道德 教育思想에 관심을 갖는 것은 부패한 사회 현실을 고발하고 그 재건을 갈망하는 啓蒙主義的 요소와 가르치는 것보다는 自律的 人格 함양에 비중을 두고있다는 점에서 교육적 가치를 들 수 있다.

이러한 점은 오늘날 道德教育이 도덕적 안목과 도덕적 판단능력의 신장을 통해서 접근하며 실천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東學이 자

을적 실천과 도야를 통하여 인격을 형성시키려고 목적하였던 점은 教育思想的 측면과 현대 교육적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할 것이다.

셋째, 民族主義 教育思想이다. 東學은 조선 말의 민족적 위기 속에서 이에 대응하여 민족에 대한 주체적 자각으로 輔國安民과 廣濟蒼生을 기본 목표로 하는 사상체계를 형성하였다. 이러한 東學의 대응은 조선사회의 운과 세계사적인 변화의 운에 대해 매우 독창적이며 주체적인 아래로부터의 창조적 대응이었으며 道成立德, 輔國安民, 布德天下하여 지상천국을 건설을 목표로 우리 민족에게 현실의 과제를 해결하고 희망과 이상을 고취한 민족운동이라는 점에서 東學의 민족주의 교육사상은 우리 민족 주체성 확립과 통일을 지향하는 우리 민족의 統一理念으로서 현대 교육적의미를 찾을 수 있다.

오늘날 한국교육의 큰 과제를 人間化, 民族統一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東學의 教育思想은 그 해결 방안을 현대교육에 제시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으며 현대교육에 시사하는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東學 思想은 훗날 東學革命이나 三一獨立運動과 소파 방정환의 어린이 운동에 기여한 점은 그 공헌이 크나 당시 形而上學的 구호에 그쳐 사회 전반에 걸쳐 실현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東學思想을 우리 민족 사상이라고 대표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역사상의 教育思想에 대한 연구는 형식적인 면과 비 형식적인 면까지 포괄한 다양한 시각의 연구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자 료>

東經大全

龍潭遺詞

神師法說

聖師法說

<단행본>

- 강돈구(1992), 「한국 근대종교와 민족주의」, 집문당.
- 김순임 외(1990), 「한국윤리사상」, 박영사.
- 김인회(1980), 「한국인의 교육학」, 이성사.
- 노태구(1995), 「동학혁명연구」, 백산서당.
- _____ (1989), 「동학의 정치사상」, 청아출판사.
- 박맹수(1998), 「동학사상의 새로운 조명」, 영남대학교출판부.
- 변태섭(1996), 「한국사통론」, 삼영사.
- 손인수(1996), 「교육사 교육철학의 이해와 실제」, 문음사.
- 신복룡(1985), 「동학사상과 갑오농민 혁명」, 평민사.
- _____ (1982), 「동학사상과 한국민족주의」, 평민사.
- 신용하(1987), 「한국민족주의 형성과 전개」, 서울대출판부.
- 신일철(1989), 「동학사상과 동학혁명」, 청아출판사.
- _____ (1980), 「한국사상총서Ⅳ」, 태광문화사.
- _____ (1975), 「한국의 민족 종교사상」, 삼성관
- _____ (포덕123), 「동학사상 전개」, 천도교중앙본부.
- 안정복(1987), 「동학의 사회개혁사상과 영향」, 교문사.
- 오익제(1989), 「천도교 개관」, 천도교중앙본부.
- 이기백(1979), 「한국사 신문」, 일조각.

- 이돈화(1963), 「신인철학」, 일신사.
- 이원호(1983), 「동학의 인간관과 현대교육적의미」, 정신문화연구원.
- 이흥우(1980), 「윤리학과 교육」, 교육과학사.
- 이흥직(1968), 「국사대사전」, 지문각.
- 이현희(1981), 「동학사상의 배경과 그 의식의 성장」, 경인문화사.
- _____ (1989), 「수운의 개벽사상 연구」, 청아출판사.
- _____ (1986), 「동학혁명과 민중」, 대광서림.
- 조용일(1988), 「동학조화사상연구」, 동성사.
- 조혜인(1990), 「한국의 사회조직과 종교사상」, 문학과 지성사.
- 최동희(1983), 「수운의 인간관」, 천도교중앙본부.
- _____ (1982), 「동학의 사상과 운동」, 성균관대학교출판부.
- 최문환(1962), 「민족주의 전개과정」, 박영사.
- 한우근(1983), 「동학농민봉기」, 일조각.
- _____ (1970), 「동양사상의 배태」, 국사편찬위원회.
- 한점수(1983), 「민족주의 민족이념」, 법문사.

<학위논문>

- 금세원(1977), “한국 근대화 과정에서 동학의 역할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대학원.
- 김길란(1993), “동학의 기본사상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영미(1996), “동학의 교육사상과 그 현대 교육적 의미”,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점권(1997), “동학의 아동존중사상과 교육”, 석사학위논문, 경상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후래(1999), “동학 교육사상 연구”, 석사학위논문, 관동대학교 교육대학원.
- 민상순(1993), “동학의 신관에 나타난 교육사상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 서윤희(1999), “동학의 여성해방 운동”,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원.

서정희(1986), “동학사상의 근대적 성격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송준석(1993), “동학의 평등교육사상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_____(1985), “동학의 가치관과 인본주의 교육사상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신부철(1982), “동학의 윤리관”,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신성조(2001), “동학의 아동존중교육사상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신언제(1993), “의암 손병희의 교육사상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양원철(2000), “동학사상의 윤리적 실천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유광진(1978), “한국 민족주의 특성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대학원.

유명철(1982), “동학운동의 민족주의적 성격”, 석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대학원.

이강일(1992), “동학의 인본주의 교육사상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이근모(1998), “동학의 『동경대전·용담유사』에 나타난 인간교육관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이대성(1997), “율곡의 「立志」와 「誠」 사상의 교육적의미”,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이영중(1993), “동학교육사상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관동대학교 교육대학원.

이헌동(1993), “동학의 교육관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임종국(1991), “동학혁명의 민족주의적 성격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대학원.

장대회(1983), “동학의 민중교육사상연구”, 박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정대성(1999), “수운 최제우의 교육사상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정미라(1992), “동학에 나타난 교육사상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원광대학교 교육대학원.

정윤수(2001), “한말 신·구 교육사상의 갈등에 관한 고찰”,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정재훈(1992), “근대 한국민족주의의 이데올로기 성격”, 석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대학원.

정지연(1995), “동학의 교육사상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인천대학교 교육대학원.

조돈희(1991), “동학사상에 나타난 신과 인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조용일(1985), “동학의 조화사상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대학원.

조운하(1993), “수운 최제우의 사상 속에 나타난 도덕교육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최무석(1988), “동학의 도덕교육사상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팽필원(1987), “동학사상에 나타난 윤리의 전통성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표세연(1980), “동학의 정치사상적 고찰”, 석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대학원.

표세원(1977), “한국근대화과정에서의 동학의 역할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대학원.

한동운(1994), “동학사상의 이데올로기적 분석”,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학위논문집 및 정기간행물>

강홍철(1988), “최수운 사상의 교육적 가치관”, 「현대와 종교」 제11집, 현대종교문화사.

국민윤리학회(1983), “한국의 전통사상”, 「국민윤리학연구」 제4집, 국민윤리학회.

- 남궁용권(1983), “동학교육사상연구”, 「논문집」 제11집, 관동대학교.
- 김용준(2002), “동학의 인간관”, 「동학혁명 백주년 기념논총」, <http://www.chondo-gyo.or.kr>.
- 김춘성(2000), “동학의 자연과 생태적 삶”, 「동학학보 창간호」, 동학학회.
- 손인수(2002), “동학의 교육관”, 「동학혁명 백주년 기념논총」, <http://www.chondo-gyo.or.kr>.
- 신부철(1983), “동학의 윤리관”, 「신인간 1월호」, 신인간사
- 이경희(1985), “인내천의 연원을 찾아서”, 「신인간 1월호」, 신인간사.
- 이항녕(2002), “동학의 우주관”, 「동학혁명 백주년 기념논총」, <http://www.chondo-gyo.or.kr>.



<Abstract>

The Examination of Donghak Educational Philosophy

Jang Won-Bae

Major in Social Studies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Cheju, Korea

Supervised by Professor Han, Seok-Ji

Donghak (Eastern Learning) philosophy was the people's awakening thought that gave them great hopes on a new era in the time of despair due to foreign and domestic crises and political, moral, and social corruption of Joseon society in the 19th century. Donghak pursued respect for human rights and egalitarianism based on equalitarian principles of 'Innecheon' and 'Sainyeocheon.' Thus, the equalitarian philosophy is still educating and enlightening to Korean people of today.

Accordingly, Donghak philosophy was a enlightening movement to awake and humanize the people as well as an educational philosophy. However, while there have been a great deal of research on religious and philosophical meanings of Donghak, there haven't been enough studies to discover an educational meaning of the philosophy that could be directly linked to education. The question here is that how it could be feasible to

※ A thesis submitted to the Committee of the Graduate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Education in August, 2002.

examine Donghak philosophy in terms of education besides religion or enlightenment. Its answer depends on how education can be interpreted. Education is the reaction of cultural and social functions, and educational problems can't be separated from our tradition. These aspects of education are the basis for analyzing the philosophy in terms of education. From this point of view,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suggest modern educational meanings of Donghak philosophy by examining educational thought that were included in the philosophy.

To conduct this study, 'Donggyeongdaejeon' and 'Yongdamyusa,' scriptures of Donghak, were examined as well as related books of reference with concentration on the educational aspect. The structure of this study is as follows:

The chapter I explains the reason why Donghak should be studied in terms of education. It also states the range and method of the study.

The chapter II examines fundamental ideas of Donghak and social and ideological backgrounds of Joseon period in order to discover the source of the philosophy.

The chapter III discloses educational thought that were fundamental to the educational aspect of the philosophy.

The chapter IV presents the modern meaning of the educational thought that are included in the philosophy based on the theory from its educational aspect.

The chapter V is the conclusion that discusses the significance and modern meaning of educational ideas through the examination of the educational aspect of the philosophy.

Based on the findings of this study, fundamental ideas of Donghak can be summarized into the dignity of human beings and national identity. In other words, the philosophy pursued social reform to help the people live in a humane society and claimed that the purpose of a state was to have them

achieve happiness.

Therefore, Donghak philosophy considered human beings as the ultimate purpose and pursued the nurture of people with self-awareness and national identity. Educational meanings were included in the realization of the purposes.

Modern educational meanings that were revealed through the examination of the philosophy are as follows:

The first meaning is an educational idea of humanism. Donghak denied the discriminate view of human beings in a feudal society and claimed that the dignity of humans is related to heaven by stating that "each person is heaven."

This principle of 'Innecheon' was an idea that began to realize the dignity of human beings and equality. It was also a declaration of self-awareness. The principle of 'Innecheon' with 'Sicheonju' can be considered as a humanist educational idea and a solution to problems of estrangement and dehumanization in a modern society. On that ground, it has modern educational importance.

The second meaning is an educational idea of moralism. Donghak strived for formation of self-controlling character with morality through 'Susimjeonggi.' The fact that the philosophy emphasized self-controlling practice proves substantial importance to modern education of morality. The reason why we are interested in the philosophy is that we place more weight on formation of self-controlling character than on enlightenment and social reform. On that account, the philosophy contains educational value that is important to the aspect of educational thought and modern education.

The third meaning is an educational idea of nationalism. Donghak formed a philosophical system that pursued national security and prosperity as basis ideas through independence and awareness in the time of a national crisis at the end of Joseon period. This reaction of Donghak was highly

unique and came from the grass-root level. Furthermore, 'Dongguilche' principle of the philosophy is to resolve conflicts naturally and can be applied to a modern society. Accordingly, it can be utilized to dissolve confrontations and conflicts between different regions, classes, and nations, and it can be reinterpreted as a reunifying philosophy to overcome contradiction and irrationality caused by the division of the Korean peninsula. For that reason, Donghak bears great educational significance even to modern times as a guiding principle for the reunification of two Koreas.

